

주제가 있는 통일문제 강좌 **21**

# 북한의 체육실태



성 문 정 (체육과학연구원)



# CONTENTS

● ● ● 주제가 있는 통일문제 강좌 21\_북한의 체육실태

## 제1장 북한의 체육정책

1. 기본이념 06
2. 체육정책 11

## 제2장 북한의 체육교육과 선수양성

1. 체육교육 34
2. 선수양성 및 대우 45

## 제3장 북한의 체육조직과 시설 및 대회

1. 체육조직 60
2. 체육시설 65
3. 체육대회 71

## 제4장 북한의 국제체육교류

1. 국제대회 참가 79
2. 국제대회 개최 88

## 제5장 남북체육교류의 현황과 전망

1. 남북체육교류의 의의 94
2. 남북체육교류 현황 102
3. 남북체육교류 전망과 과제 118





# 제1장 북한의 체육정책



주제가 있는 통일문제 강좌 21

# 제1장 북한의 체육정책

## 6

## 1. 기본이념

북한의 사회과학출판사에서 발행한 정치용어 사전에 의하면 체육이란 “신체를 다방면적으로 발전시키며 집단주의 정신과 혁명적 동지애, 굳센 의지, 규율 준수에 대한 자각성과 책임성 등 고상한 사상과 도덕적 품성을 개발함으로써 국방력을 강화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사회주의 헌법 제55조에서 “국가는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 전체 인민을 노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며 우리나라 실정과 현대 체육기술 발전추세에 맞게 체육기술을 발전시킨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상의 사례에서 보듯이 북한에서 체육이념은 사회주의적 정치이념과 일치한다. 따라서 북한에서의 체육은 공산혁명을 완수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인식되는 것이 당연한 논리라 할 수 있다.

즉, 체육은 개인의 신체적 발달과 정신적 강인함을 길러 노동과 국방에 기여하며, 전체 인민들에게 집단주의 정신을 높여 공산사회를 건설하는데 필요한 공산주의적 인간을 만드는 수단인 것이다.

이처럼 북한에서의 체육은 개인 및 전체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이라는 일차적 목적보다는 정치·사상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적 가치에 중점을 둔다. 따라서 북한의 기본적인 체육정책은 대중화 및 전인민화를 기반으로 노동과 국방에 기여하고 공산주의 사상을 전 주민에게 주입하는데 그 주안점을 두고 있다.

북한의 기본적 체육정책인 대중화 및 전인민화는 김일성이 1946년 10월 6일 체육인대회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처음 제시되었다. 이 연설에서 김일성은 선수 위주의 체육을 지양해야 하며 체육이 소수의 사람들만을 위한 유흥거리가 되어서도 안된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체육정책의 지향점이 대중화·전인민화임을 천명했다. 여기서 제시된 체육의 대중화라는 기본정책에 따라 경기대회 뿐만 아니라 인민체력 검정제도를 비롯한 각종 체육사업도 마련되었다. 특히 인민체력 검정제도는 학생이나 운동선수 등 특정 계층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체육 대중화 정책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의 체육은 국가의 성격 및 정책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으며 개인, 사회, 국가의 건강 및 대중문화 수용 및 발달의 수단으로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하나의 사회 현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체육을 국방력 증강 및 경제건설에 기여하고, 주체사상과 당의 방침을 관철시키는 활동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따라서 북한의 체육은 계획적인 신체활동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사회

적으로 완성된 인간을 육성하는 것 보다는 집단적 활동을 통해 사상교육을 강화시키고, 체력을 향상시켜 노동력과 국방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에서 체육의 개념은 개인의 삶을 향상시키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일반 국가의 체육개념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남한과 북한이 체육에 대한 개념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남북한의 이념적 차이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배경에 근거를 두고 체육을 인식하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적 배경에서 살펴보면, 북한의 통치이념은 주체사상을 강조하는 김일성주의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도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따라서 체육사업도 주체사상을 확립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공산주의적 혁명인재를 키우기 위한 것에 중점을 두고 실시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체육은 자연스럽게 국방체육의 대중화와 생활화, 생산노동과 체육활동의 결합, 체육에 대한 당의 통제 강화 등이 강조되고, 북한의 모든 체육활동은 조선노동당의 통제 하에 이루어지며 순수 민간단체 중심의 체육활동은 인정하지 않는다. 즉, 국가나 당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체육활동만을 인정하며 국방력을 강화하고 사회주의 건설을 이룩하는데 이바지하는 수단으로 체육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의 체육정책이나 체육교육 내용도 정치사상적 내용을 중시하는 당의 기본 노선과 김일성·김정일의 교시나 지시에 의해 결정되었다.



둘째, 경제적 배경에서 살펴보면 북한은 마르크스의 경제이론을 바탕으로 국가의 모든 물질 생산수단을 사회 구성원 각자의 소유가 아닌 집단의 소유로 하고 생산량은 사회 구성원에게 목적에 따라 배분하며, 모든 경제체제는 중앙집권적으로 운영하는 계획경제의 원칙을 수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체육활동은 개인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생산성 증대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체육의 대중화 정책에서 잘 나타나 있는데, 북한은 체육의 대중화 정책을 실현하면서 모든 근로자들에게 체육활동에 참가하게 함으로써 신체를 단련시켜 노동의 생산성을 증대시키는데 중요한 의의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북한에서는 업간체조와 생산체조라는 독특한 형태의 체조를 창안하여 각 기업소 및 공장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작업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생산성을 증대할 수 있도록 작업 도중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생산력 증대에 필요한 각종 농기구 조작기술 등을 체육종목으로 규정하여 체육경기대회를 실시하고 있다. 경기종목으로는 절삭경기, 트랙터수리경기, 김매기경기, 모내기경기, 굴뚝기경기 등 다양한 생산성과 관련된 종목들이 있으며, 각 기업소 및 공장 간에 경쟁을 통해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적극적인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에서의 모든 체육활동은 생산력 증대를 위한 활동과 결합시켜 실시되고 있다.

셋째, 사회적 배경에서 살펴보면 북한은 주체사상으로 전 국민을 무장시키고 체제에 순응하며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산주의 인간형을 강조한다. 이에 따라 북한의 체육은 집단주의 정신을 함양시켜 당의 유일사상을 확립하는 정책수단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으며 체육의 내용과 방법에서도 조직적인 활동을 기본으로 하는 집단주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 북한 사회주의 헌법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의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집단주의 원칙에 근거하여 북한 주민들의 사회생활은 집단화되어 있고 집단적 규율 속에서만 행동이 가능하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집단 달리기, 집단체조 등 집단 활동을 강조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한 북한은 집단체조를 청소년들과 근로자들을 조직성, 규율성, 집단성을 배양하는 효과적인 하나의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집단체조를 국가적 행사시 대규모로 실시함으로써 체제의 우월성을 과시하고 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체육에 대한 의미는 인간의 삶을 행복하고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두고 있다. 즉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인간을 육성하는데 두고 있으며, 우리 남한에서의 체육 역시도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개인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심신의 조화적 발달을 도모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반면 북한의 체육은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체육이 노동력과 국방력을 증대시키며 당의 지침을 관철하고 체제를 유지하는 수단으로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결론적으로 보면 북한의 체육은 철저히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실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체육을 통해 유일사상 확립을 강화하고 국방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체육에서의 사상전, 속도전, 투지전, 기술전 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 2. 체육정책

### 가. 개관

광복 후 남북이 갈라진 상태에서 북한에서 체육이 실시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북한에서의 체육정책은 한국전쟁 이후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전후 복구사업의 일환으로 체육사업 기반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김일성은 1953년 8월 당중앙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학교, 공장, 농촌을 비롯한 모든 곳에서 체력 향상을 위한 대중적 운동을 전개할 것과 체육단체의 복구, 운동장과 수영장 같은 체육시설의 설치를 지시하였다. 이 지시 이후 1954년 6월 24일 내각결정 제93호로 내각직속 체육지도위원회가 조직되었으며, 같은 해 8월3일에는 ‘공화국 체육사업 발전을 위한 안’이 시달되면서 1954년 9월부터 1955년 8월까지의 3단계의 1개년 체육사업계획이 수립되었다.

제1단계는 1955년 2월까지 6개월간으로 설정했는데, 이 기간 중 체육사업에 대중을 광범위하게 망라시켜 인민의 체력강화에 주력하였다. 종목별 협회와 체육단체를 조직하고 인민체력검정 실시, 경기장을 비롯한 시설 및 기자재의 재정비 등이 계획되었다. 또한 체육교양사업을 강화하며 체육이론과 경험에 기초한 운동, 경기기술의 향상을 도모할 것을 결정하였다.

제2단계는 1955년 5월까지의 3개월간 이었다. 이 기간에는 우수선수 선발과 그 진행방법을 설정하여 각종 경기대회를 통해 도시, 군-리 단계의 대표선수를 선발하도록하고, 집단체조훈련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제3단계는 1955년 8월까지의 3개월간으로, 제2단계에서 선발된 선수의 훈련과 경기기술, 경기지도 사업의 향상을 꾀하고 8·15 해방 10주년을 기념하는 전국체육축전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정했다.

위의 계획이 전후 체육사업 복구를 위한 조치였다면 ‘체육 및 스포츠사업을 개선 강화할데 관하여’라는 내각명령 제14호는 북한 체육정책의 뼈대를 갖추기 위한 시발점이었다. 1956년 2월에 발표된 내각명령 제14호는 인민들이 체육을 통해 체력 향상, 애국주의 사상교양, 인내력과 강인함을 도모하여 노동과 국방에 기여하도록 할 목적으로 취해진 조치였다. 구체적으로는 각 기관, 기업소, 협동조합 및 농촌에 보건체조를 보급 장려하고 생활화할 것, 농어촌 청년들 속에 체육사업을 강화할 것, 학교체육을 활성화할 것, 각 도·시·군 소재지의 체육시설을 정비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민족체육의 보급·발전을 강화할 것과 인민체육 일군들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물질적 대우를 개선할 것 등도 포함되어 있다.

이어 1958년 3월 19일 내각결정 제30호 ‘체육 및 스포츠 보급과 체육간부 양성사업을 개선할 데 관하여’가 발표되었는데, 여기서는 근로자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근로자들을 인민체력검정에 적극 참가시키는 한편, 일정한 규모 이상의 공장과 기업의 체육사업 지도를 위해 전임 체육지도원을 배속시키도록 하였다. 또한 청소년, 학생, 군중에 대한 스포츠의 체계적 지도를 강화할 것, 스포츠 구락부를 청소년스포츠학교로 전환할 것 등을 지시했다. 아울러 체육간부를 양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평양체육대학의 설치와 체육스포츠의 선전사업 강화 등도 지시하였다.

체육정책의 골격이 1956년과 1958년의 내각결정 및 명령에 의

해 마련되자 체육을 체제 강화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한 사상강화 작업도 진행되었다. 1958년 6월30일부터 7월1일까지 열린 전국체육 열성자회의에서는 이른바 반당·반혁명분자들을 색출하고 이들이 획책한 자본주의와 수정주의를 폭로 규탄하였다. 이때부터 체육정책은 김일성의 지시에 따라 결정되고 통제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또한 이 대회에서는 국방체육을 강화할 것을 결의하고 한 가지 이상의 국방체육종목을 의무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청년들을 조직·지도할 것을 제시하고 체육의 과학화, 스포츠기술의 제고 등도 강조되었다.

이처럼 체육정책의 제도적·사상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김일성은 1958년 12월 30일 당중앙위원회 상무회의에서 사회주의 체육의 내용을 확대하고 체육사업을 전면적으로 개선·발전시키기 위해 군중체육사업과 체육기술을 조속히 발전시킬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내각은 1959년 2월 27일 내각결정 제15호 ‘체육사업을 발전시키며 스포츠기술수준을 제고할 데 대하여’를 채택하였는데, 체육의 기본정책과 제도, 실행방안 등을 22개항으로 구성하여 제시하고 있는 내각결정 제15호는 오늘날 북한 체육사업의 핵심을 이루는 내용이다.

내각결정 제15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1~4항은 체육의 대중화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다. 여기에는 모든 근로자들이 매일 1시간 이상 체육운동을 실시할 것(1항)과 인민체력검정사업의 강화(3항), 생산과 건설 및 사무직장, 농업협동조합을 비롯한 기타 모든 주민지구에 체육단을 조직하여 군중을 광범위하게 망라할 것(4항), 이를 위해 각 기구 책임자들과 간부들이 지도·술선수범을 할 것(2항, 3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제5~6항은 학교체육의 강화에 관련된 것이다. 체육수업증가(5항)와 학생들에 대한 의료검사사업 실시(6항)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7항에서는 체육사업에서 거둔 성과를 근로자의 사회주의 경쟁종목의 하나로 포함시켜 평가하도록 했으며, 제8항에서는 체육 기본종목을 더욱 대중화하고 대중적 체육행사를 광범위하게 조직하는 것 이외에 국방체육을 발전시키도록 하였다.

제12~15항에서는 1959년까지 체육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다. 각 전문학교 및 대학, 2급 이상 기업소 및 농협조합에 주요 종목의 선수단을 구성할 것(12항), 중요한 생산 및 건설 직장과 시·군 소재지에 청소년 스포츠학교 200개교를 세울 것(13항), 각 종목별 연맹전대회를 만들고 국가대표팀을 1959년까지 조직할 것(14항), 선수등급 2급 이상 선수와 청소년 스포츠학교 학생들에게 기본 임무 외에 2시간 이상 체육훈련을 보장할 것(15항) 등이 그것이다.

제16~19항에서는 체육사업의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제16항에서는 각 부문의 체육협회와 종목별 분과위원회의 조직·정비 및 기능과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였다. 제17항에서는 체육사업을 통일적으로 지도·강화할 대책을 마련하여 실시할 것, 체육규정 및 기술지도를 단일화할 것, 체육지도위원회가 체육 및 스포츠시설들을 통일적으로 관리·운영할 것 등을 지시했다. 제18항과 19항에서는 체육간부 양성을 위한 평양체육대학 설립과 그 운영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다.

이렇듯 내각결정 제15호는 체육의 대중화, 학교체육의 강화, 생산체육의 조직, 국방체육의 강화, 체육기술의 향상, 체육간부의 양성, 체육의 과학화에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 내용은 이후 체육정책에서 일관되게 적용되며, 특히 체육대중화 정책

은 다른 모든 체육사업의 토대가 되었다. 결국 체육의 대중화를 바탕으로 한 북한의 체육정책은 1950년대에 이미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체육정책은 1960년대부터 그 내용이 보완되고 확대·강화되었다. 김일성이 1964년 10월 22일 교육 및 체육부문 지도일군협의회에서 체육사업의 활성화를 지시함에 따라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1965년 2월 내각결정 제7호 ‘체육부분에서 체육사업을 전인민적 운동으로 전개할 데 대하여’가 채택되었다.

내각결정 제7호는 체육대중화를 보다 확대·발전시키기 위해 군중체육 사업조직의 지도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각급 학교체육사업은 고등교육성과 보통교육성이 담당하게 하였다. 학생체육사업을 성별, 연령별, 학년별 및 심리적 특성에 맞게 개선할 것과 인민체력검정에 대한 각급 학교별 합격기준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체육교수요강과 과정을 학생들의 신체 발육에 맞춰 개편할 것, 입시과목에 체육을 포함시킬 것, 1시간 이상의 과외체육 활동 시간을 보장할 것, 일요일 및 명절일(휴일)에 체육행사를 진행할 것 등을 결정하였다.

특히 국방체육을 개선·강화하기 위해 근로자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방실용체육종목을 보급할 것을 강조하고 학생들의 경우, 국방실용체육의 종목별 소조를 조직·운영하도록 하였다. 국방체육은 이미 1957년부터 국방체육구락부를 포함하여 학교나 사무직·생산직 근로자들도 참여하는 군사체육종합경기대회가 진행될 정도로 매우 빠르게 조직되었다.

북한의 체육정책에서 국방체육이 갖는 중요성은 1967년 4월 노

동당 제4기 15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체육지도 육성강화책’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조선체육지도위원회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노동당 중앙위원회 선전부에서 군사부로 이관하여 체육의 군사체계화를 꾀할 정도였다. 이 강화책에서는 체육을 통한 사상강화책도 제시했다. 즉 체육기술을 고도로 발전시켜 사회주의 국가의 우월성을 과시할 것과 체육정신에 입각한 단결을 이용하여 주민 전체에게 유일사상체계의 확립과 무장화를 기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전후 체육의 기본정책은 기존의 대중화 방침에 국방체육과 사상교육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설정되었다.

북한 체육정책의 완결편은 김일성이 1969년 11월 4일 전국체육인민대회에서 ‘체육을 대중화하여 전체 인민들을 노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자’라는 제목으로 한 연설이라 할 수 있다. 이 연설에서 김일성은 체육대중화 사업은 국가존망에 관련될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건설에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체육을 전인민적 운동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학교체육이 광범위하게 실시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즉, 9년간의 의무교육이 실행되고 있는 환경에서 학교체육의 강화는 학생들의 체력단련을 습관화하여 체육의 대중화에 큰 발전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 모든 기관, 기업소와 협동농장에서의 체육사업도 강화되어야 하며 체력단련과 체육활동에 필요한 일정한 시간을 배정하여 근로자들의 체력단련을 도모하자고 강조하였다.

끝으로 김일성은 체육인의 사상성 강화도 강조하였다. 즉, 모든 체육인들이 노동계급화, 혁명화 하기 위해 누구보다도 앞장서 투쟁해야 함은 물론이고, 당성·노동계급성·인민성을 가진 참다운 ‘공산주의적 체육인’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김일성의 언급은 체육이 북한사회에서 사상적 도구로서 기능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김일성의 연설에서 나타난 북한 체육정책의 기본방침은 1980년대 김정일이 체육관계자들과 한 담화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김정일은 1986년 5월 19일 체육관계자들과 한 담화에서 체육 분야에서 사대주의와 교조주의가 극복되고 주체사상이 확고히 확립되었으며 체육의 대중화 정책이 큰 진전을 가져왔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사상적·정책적 성공의 기초 위에서 체육사업이 물질적·기술적 발전을 이루었으며 국제무대에서의 활약도 제고되었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체육의 대중화가 여전히 인민대중을 위한 기본정책임을 밝히고, 대중화·생활화를 위하여 학교,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에서의 체육사업을 강화할 것을 역설하였다.

또한 북한체육이 공산혁명을 완수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인식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히면서 체육의 발전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체육부문에 대한 당 차원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체육인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과 생활지도의 강화라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김일성이 1969년 연설에서 언급한 체육인들에 대한 사상교양 강화와 일치하는 것이다.

그런데 김정일 담화에서는 앞서 나왔던 김일성의 담화나 연설과 달리 체육기술의 발달에 대한 언급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체육기술 발달을 위한 체육과학 분야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먼저 김정일은 1986년 담화에서는 체육의 과학화에 대한 간략하고 개괄적인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축구와 마라톤과 같은 북한의 전략종목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지시하고 운동생리학, 운동영양학 등에 대해 간단하게 언급했으나 1989년 담화에서는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분야까지 언급하고 있다.

즉, 기존의 체육과학 연구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었음을 비판하고, 체육기술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전망과 단계별 계획에 따라 체육과학연구를 진행시킬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이어 체육기초과학을 개척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고, 운동영양학의 연구사업을 강화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김정일은 체육과학을 발전시키기 위한 또 다른 방안으로 체육과학연구소와 체육과학도서관 등 연구지원시설의 강화방안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다.

김정일이 체육기술의 발전을 강조하는 것은 체육 분야에서 적극적인 대외교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86년 담화에서 그는 체육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활발한 국제경기, 특히 해외원정 경기를 장려할 것과, 체육이 국제적으로 매우 높은 관심을 끌고 있고 체육활동과 체육교류가 세계적으로 널리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경기에 자주 출전하는 것은 북한의 영예와 민족의 슬기를 세계에 과시할 수 있는 기회이며, 체육기술을 발전시켜 체육교류를 폭넓게 하면 세계 각국과의 친선관계도 발전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1989년 담화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축구에 한정되어 있긴 하지만 브라질 등 외교관계가 없는 남미 국가를 비롯한 축구 선진국에 선수단을 파견하는 것은 물론, 남한과의 축구경기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김정일의 이러한 발언은 경기력 향상은 물론 국제 스포츠 강국들과의 친선 도모·스포츠교류를 통해 스포츠 외교역량을 강화하는데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북한은 이미 1980년 10월 제6차 당대회를 통해 ‘자주·친선·평화’라는 외교정

책의 기본이념을 채택하여 공산국가와의 단결을 강화하는 동시에 우호적인 자본주의 국가와도 친선관계를 맺겠다는 대서방 외교강화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1986년과 1989년 담화에 나타난 김정일의 지적은 6차 당대회에서 제시되었던 대서방 외교 강화 방안의 하나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실제로도 북한체육의 대외활동은 이때부터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처럼 북한의 체육정책 수립과 실행과정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교시나 지시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것은 북한 사회체제의 성격과 연관되어 있다. 북한은 1960년대부터 김일성 일인지배체제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주체사상을 유일사상으로 채택하고, 이를 북한 사회의 기본 지배원리로 삼았다. 따라서 체육정책에 있어서도 김일성의 교시나 지시, 지도 등이 먼저 제시되고, 내각 등에서 이것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체제를 갖추었다. 즉, 김일성 교시 → 내각결정 → 노동신문 보도의 순서로 체육정책이 결정되는 것이다. 체육정책이 결정되면 전국체육인대회나 체육절 등 체육관련 행사에서 이전 체육정책에 대해 총화하고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는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교시나 지도를 실행할 것을 결의하는 형식을 취한다. 다시 말해서 체육정책의 결정과정이 이러한 형식과 과정을 갖추는 것은 무엇보다도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교시나 담화가 법체계를 뛰어넘는 초법적 권위를 갖는 북한사회의 특징 때문이다.

김일성, 김정일 교시가 매우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사항까지 담고 있다는 데도 그만한 이유가 있다. 예컨대, 1969년 11월 체육인대회에서 김일성은 연설을 통해 체육을 전인민적 운동으로 하는 방안으로 학교체육 발전을 언급하면서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기울과 봄철에 등산을 해야 한다', '야간행군을 많이 조직하여 몸을 단련

해야 한다’, ‘강과 바다에서 수영을 널리 해야 한다’는 등 구체적 사항을 지적했다. 그리고 각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 광산, 가정 등에서 실시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들을 하나하나 밝히고 있다.

따라서 관련기관에서는 김일성이 지적한 구체적 방안들을 직접 실행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내각에서는 김일성이 지적한 모든 사항들을 포괄하는 정책결정문을 채택한다. 그리고 이를 노동신문이 다시 보도하여 북한 주민들에게 알리고 전국체육열성자(체육인)대회나 체육절 행사 등에서 이에 대한 실행의 효과를 총화하며, 김일성·김정일의 교시나 담화의 내용을 제대로 시행하자고 결의하는 것이다.

## 나. 체육정책의 주요 특징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북한의 체육정책 수립과 실행과정은 모두 김일성과 김정일의 교시나 지시를 통해 이루어지며, 체육을 집단적 경험을 통한 사상교육의 일환으로 활용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체력단련을 통해서 노동력과 군사력의 배양, 체육기술 발전 등의 기회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북한 체육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는 김일성·김정일의 지시 및 담화, 연설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에 근거하여 설정된다. 연설문 및 담화문을 통해 김일성과 김정일이 강조하고 있는 체육정책의 특징으로는 국방체육의 강화, 체육교육의 강화, 군중체육의 강화, 엘리트 체육의 강화 그리고 집단체육의 강화 등 5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국방체육의 강화

북한은 1959년 2월 27일 내각결정 제15호에서 ‘국방체육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국방체육의 역할과 임무를 제시한 이래 1962년 12월 소위 ‘4대 군사노선’ 채택과 더불어 국방체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표면화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에서는 국방체육의 의미를 인민들을 조국 보위에 튼튼히 준비시키기 위한 대중적인 체육활동이며, 군사 활동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군사지식과 장비 조작 기능을 습득하여 전체 인민들과 군인들을 현대전의 요구에 맞게 군사적, 육체적으로 튼튼하게 준비시키는 데 이바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 주장하는 국방체육은 군인을 비롯한 전체 인민들에게 전쟁을 수행할 신체적 능력을 갖추어 줄 수 있도록 체력을 단련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국방체육은 우리나라 군체육의 개념과 비슷한 것으로 국방력을 증강시키기 위해서는 군인들의 강인한 체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군에서도 국방체육을 강화하여 국방력을 증강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국방체육은 우리의 군체육과는 달리 국방체육을 통해 군은 물론 근로자 및 청소년 그리고 학생들의 체력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유사시 전쟁에 즉각 투입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전 인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북한에서는 국방체육을 ‘청소년과 근로자, 인민군 군인들에게 군사 활동에 필요한 지식과 장비조작 기술 기능을 소유시키며 그들의 몸과 마음을 튼튼히 단련할 목적으로 진행되는 국방활동과 밀접히 결합된 체육’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백과전서, 1981). 따라서 모든 학교에서는 국방체육 종목을 학생들에게 적극 권장하고 있다. 특히 학생들에게 국방력 증강을 위해 국방체육을 학교 체육활동으로 변형시켜 청소년들을 지덕체를 갖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

로 육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학교에서도 국방체육을 강조하고 있다.

김일성은 1967년 5월 30일에 발표한 ‘체육에서의 국방체육을 일층 강화하라’의 담화를 통해 체육사업을 일반체육에서 국방체육으로 변화시켜 반미사상을 정당화 하는 내용으로 경기종목을 창안하여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체육교육에서도 ‘미국놈 찌르기’, ‘남조선 달리기’, ‘수류탄 던지기’, ‘포탄 나르기’ 등 실전에 필요한 요소를 경기 종목으로 도입하여 체육활동으로 활용하였다. 이처럼 북한에서 국방체육은 청소년 학생들에게 중점적으로 보급되고 있으며, 학교에서는 매일 일과후의 과외시간과 매주 ‘토요 체육의 날’을 이용하여 실시하고 있다.

북한의 국방체육은 1970년대 후반기에 각 시, 도에 각종 국방체육구락부를 설립하여 군사력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더욱 활성화되었으며 군인뿐만 아니라 모든 주민들에게 국방력 증강을 통한 통일을 준비하는 수단으로 국가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1975년 4월 청소년 학생들이 보위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체력을 키워 줄 것, 키키기 운동과 달리기를 잘하도록 축구, 농구, 권투, 사격 등을 다양하게 가르칠 것, 노동자들에게 생산과 국방을 결합시킨 체육을 지도하고 특히 아침체조와 달리기를 시킬 것, 전투적인 군중체육 행사를 모든 기관 및 기업소에서 벌일 것, 체육시설과 기구를 마련하고 씨름장, 궁술장 등 전투적인 체육을 권장할 것 등 5개 사항에 대한 ‘국방체육 강화 지침’을 발표하여 모든 근로자, 청소년, 학생, 인민들에게 전투적 체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혁명적 전투에 이바지하도록 하여 국방력을 강화시키고 있다.

이처럼 북한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방체육의 특징으로는 첫째, 순수한 스포츠 활동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일반주민들에게 군사적 기초지식과 기술을 습득시키고 신체를 단련시켜 유사시 전쟁에 투입할 수 있는 유능한 전사를 육성하는 것이며 둘째, 군에서만 행해지는 스포츠가 아니라 학생이나 근로자들을 포함한 전 인민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실시되고 있으며 셋째, 국방체육 종목이 스포츠이기보다는 준 군사훈련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의 국방체육은 국방이나 스포츠 그리고 노동 등 3개 요소를 충족시키기 위해 북한이 창안해 낸 독특한 형태의 체육활동이다.

## 2) 체육교육의 강화

북한의 체육교육은 청소년들에게 지덕체가 겸비된 혁명가로서 실천적인 투쟁으로 공산주의 혁명과 건설에 이바지하는 공산주의형 인간을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강인한 체력과 육체적 능력을 배양하여 사상적 정치적으로 무장시키고 과학기술의 성과적인 학습을 보장해 주고 노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킬 수 있는 신체적 정치적 능력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북한의 체육교육은 학생들의 체력을 체계적으로 단련시켜 혁명의 후비대로 양성시켜 공산주의의 위력을 강화하며 학생들에게 조직성과 규율성, 집단주의 정신 그리고 강한 의지를 키워주며 또한 학생들에게 용감성과 대담성, 강인한 투지와 인내성 등 사상 의지적 품성을 함양하는데 체육교육의 의의를 두고 있다. 특히 김정일은 체육교육의 의의와 사명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기 위해서는 학교체육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학생들은 육체적으로 한창 성장 발육하는 때이므로 학

교체육을 강화하면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모두 키가 크고 몸이 조화롭게 발달된 건강한 사람으로 키울 수 있으며 그들 속에서 우수한 선수후보도 많이 키워낼 수 있다. 학교체육사업을 강화하여 학생들에게 체육에 대한 기초지식과 일정한 체육기술을 배워주면 그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아가 군중체육을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 할 것이다. 학교에서 체육사업을 활발하게 벌여야 학생들을 노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고 그들 속에서 집단주의 정신과 강인한 의지를 키우며 노쇠와 침체, 안일과 해이를 극복하고 왕성한 투지와 불타는 정열에 넘쳐 전투적으로, 낙천적으로 살며 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 체육을 대중화하며 체육기술을 빨리 발전시킬 데 대하여, 1986).

이와 같이 북한의 체육교육은 전인적 인간을 형성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여 체육교육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학생들에게 체육활동을 통한 사상교육과 전쟁에 필요한 강인한 정신력과 체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북한은 체육을 대중화하여 전체 인민들을 노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체력을 단련하는 습관을 형성시키고 이를 체계적인 방법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체육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체육교육에서 무엇을 가르치며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체육교육을 강화하고 과외시간을 통해 체력단련에 관심을 고취시켜야 하며 청소년들에게 축구, 농구, 배구, 철봉, 평행봉, 기계체조 등을 시켜야 하며 널뛰기, 그네뛰기, 줄 당기기 등 민족체육 종목을 널리 장려시켜 민족의식을 고취시켜야 합니다. 둘째, 중



학교 이상의 학교에서는 가을과 봄에 등산을 실시하여 자연 지리적 조건에 대해 익숙해지도록 하고 행군 및 야간행군을 통해 몸을 단련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학생들의 체력 단련을 위해 강과 바다에서 수영을 널리 보급시켜 성인이 되어 바다를 정복할 수 있는 강인한 체력과 수영 기술을 습득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모든 부문 교육지도일군들은 체육사업이 가지는 커다란 의의를 인식하고 체육에 대한 관점을 올바르게 세워 체육을 유흥거리로 간주해서는 안되며, 체육이 장난이 아니라 하나의 과학이라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체육을 발전시키는 것이 문화혁명을 달성하는데 중요한 구성 성분으로 하루 8시간 학습시간에 체육시간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해야 합니다.”(김일성, 체육을 대중화하여 전체 인민들을 노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자, 1970)

이와 같이 체육교육에 대한 의의와 구체적인 교육내용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체육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관계자들이 체육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체육교육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어 청소년들의 체력 향상에 소홀히 하고 있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체육교육은 인민들이 건장한 체력을 지니고 자조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사업이라 강조하면서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 군중체육을 발전시키는데 이바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데 중점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체육교육 사업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체육교육사업에서 학생들의 키를 크게 하고 몸을 조화롭게 발달시키며 학생들에게 체육에 대한 기초지식과 한 가지 이상의

체육기술을 소유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학생들의 체력을 향상시키고 성장 발육을 촉진시키며 체육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육상, 철봉운동, 평행봉 등의 체육종목을 가르쳐야 하며 축구, 배구, 농구, 탁구 등 구기종목을 가르쳐 청소년들의 몸을 단련시키고 키를 크게 할 뿐 아니라 규율성, 용감성, 대담성, 강인성과 민첩성 등을 향상시키도록 하고 있다.

셋째,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수영을 가르쳐 바다와 강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을 없애주고, 여학생들에게 체육무용을 가르쳐 몸을 균형적으로 발달시키고 정서를 풍부하게 해주어야 한다. 또한 집단 체조를 널리 보급시켜 집단주의 정신을 함양하도록 하고 있다.

넷째, 학교에서 체육수업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과외체육 활동을 적극 추진해야 하며 학생들의 소질과 취미에 맞도록 조직하며 계절에 따라 수영, 스키, 스케이트, 등산 등 다양한 종목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다섯째, 체육교육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야 하며 '모범체육학교' 쟁취 운동을 적극 실현하도록 하고, 체육교육 수업의 연계로 가정에서도 체력을 단련하는 아침체조와 달리기, 걷기, 냉수마찰 그리고 체조운동으로 평행봉, 철봉 등을 널리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에서의 체육교육은 노동과 국방에 결부시켜야 한다는 방침에 따라 국방체육을 위주로 체육을 대중화하여 청소년들에게 조국을 옹호하고 보위할 사회주의 애국정신을 고취시키고, 우수한 스포츠 기술의 연마보다는 혁명의 후비대로서 양성하기 위한 집단주의 정신함양과 조직성, 규율성 함양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는 청소년들이 튼튼한 체력을 소유할 때 비로소 혁명투쟁과 부강한 사회주의 건설이 가능하며 체육교육을 잘하여 청소년들의

체력을 튼튼히 키워야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 나갈 수 있고 나라의 위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보는 데서 연유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북한에서는 체육의 중요성 및 필요성에 대해 체육을 널리 발전시켜 전체 인민들의 몸을 튼튼하게 하는 것은 나라의 흥망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며, 모든 근로자들을 노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강조하면서 체육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 3) 군중체육의 강화

북한에서 실시하고 있는 군중체육의 의미는 모든 군중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일반 군중체육을 널리 발전시키는 것은 체육을 대중화하고 근로자들의 체력을 증진시키며 인민들을 노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은 1959년 2월 27일 '내각결정 제15호'로 체육의 대중화를 강조하면서 직장별로 체육단을 조직하게 했고, 1962년 5월 3일에는 '청소년 교양사업을 개선 강화 할 데'라는 김일성 교시를 발표하고, 군중체육을 발전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체육교육의 중요성과 국방체육에 치중할 것을 지시하였고, 1965년 2월 25일에는 내각결정으로서 체육의 대중화에 따른 체육지도 체계를 정비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북한에서는 군중체육을 전인민을 노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기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간주하고 군중체육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요강으로는 각 공장 및 기업소는 직장단위로, 협동농장에서는 작업반 단위로, 학교에서는 체육소조와 종목별 소조를 조직하고, 도·시(구역)·군마다 체육구락부 및 체육회관에서 방과 후 혹은 일과 후 그리고 공휴일 등을 이용하여 강습하거나 경기 등을 통해 체육기술과 체육상식을 보급하고 있다.

북한은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기 위하여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에서 자기 단위의 특성에 맞게 체육시간을 정하고 모든 근로자들은 아침체조, 업간체조, 걷기와 달리기에 참가하도록 하며 공휴일이나 명절날에는 배구, 탁구, 국방체육 경기에 간부 및 모든 근로자들이 참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가정에서도 아침체조와 걷기, 달리기, 냉수마찰 등을 실시하여 몸을 단련하고 건강을 증진하고 있으며, 체육월간사업과 모범 체육군 창조 운동을 전개하면서 인민들에게는 인민체력검정에 참가하여 합격하도록 독려하면서 해양체육 월간사업, 겨울철 체육월간사업에 적극 참여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북한에서는 인민들의 체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1986년 김정일이 '체육의 대중화 방침'을 발표하였으며 또한 1992년부터 매월 둘째 일요일을 '체육의 날'로 지정하여 이를 통해 인민들의 체력을 향상시킨다는 목적 하에 군중체육 종목은 전인민에게 실시하고 있다.

#### 4) 엘리트 체육의 강화

북한은 엘리트 체육에 중점을 두고 국가적 차원에서 우수선수를 조기에 발굴하여 유망선수로 육성하기 위해 소학교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선수들을 관리 육성하고 있다. 즉, 각종 스포츠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를 한층 강화하고 우수선수를 수준에 따라 등급을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우수선수 육성사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스포츠구락부를 청소년스포츠학교로 개편하기도 하였다. 또한 체육시설을 확장하고 체육 기자재의 질을 향상시키며 도, 시, 군 소재지의 경기장 및 운동장을 정비하고 확장하였다.

최근 북한에서는 국제경기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올려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생각하고 엘리트스포츠를 강화하고 있는데, 김정일은 엘리트스포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첫째, 체육에서 축구는 기본이며 여자 축구도 활성화 시켜야 하며 여자배구도 활성화시켜 국제무대에서 주체조선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둘째, 체육을 과학화하여야 하며 체육의학 부분도 발전시켜야 한다. 체육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체육생화학, 체육영양학 등 체육기초과학을 새롭게 개발하여 체육부분에 적용시켜 체육기술을 향상시키도록 해야 하며 체육의학부분에도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셋째, 체육과학 연구소를 조직하여 체육기초과학 분야에 관심을 갖고 연구해야한다. 이를 위해 체육과학 도서관을 설립하여 체육과학 일꾼, 체육지도원, 선수들에게 체육과학 기술 자료를 제시하고 체육기술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야 한다. 넷째, 체육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적 지도하에 체육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체육사업을 관장하던 조선체육지도위원회를 국가체육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며 체육사업에서 체육기자재의 공급과 운영자금, 대회출전 및 훈련, 경기장 및 체육관 등 모든 부문을 통일적으로 운영 관리하여 그 효율성을 높여 국가 체육기술을 발전시키도록 한다. 다섯째,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운영을 국가체육위원회 체육시설 관리 총국에서 총괄하도록 하여 체육시설의 관리 보존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보다 더 많은 현대적인 경기장 및 체육관 건립을 적극 추진하도록 한다. 여섯째, 국가의 명예와 체육기술 발전에 공로를 세운 체육인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대우를 해주도록 한다”(김정일, 1987).

또한 북한에서는 엘리트체육의 발전을 위해 체육인 우대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각종 국제대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이나 입상을 한 선수를 대상으로 성적에 따라 인민체육인(1966.10.8 제정), 공훈체육인(1960.11.11 제정), 체육명수(1965.12.24 제정) 등으로 구분하여 사회적 지위와 사기 진작, 은퇴 후 노후 생활문제 등을 보장해 주고 있다. 이러한 체육인 및 우수선수에 대한 처우개선을 통해 우수선수를 양성하고 있으며 1급 이상의 선수들에게는 직업체육인으로 대우하며 각 체육단 및 과외체육학교 지도원으로 평생 체육 지도자로 종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김정일은 엘리트체육을 통해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후계자로서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 국제경기에 참가해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들에게 ‘노력영웅’이라는 칭호를 수여하고 있으며 고급승용차까지 제공하는 등 체육인 우대정책을 강력히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에서는 엘리트 체육을 강화시키기 위해 체육지도자 및 우수선수에 대한 사회적 지위와 사기 진작 그리고 은퇴 후 노후생활 문제 등을 국가적 차원에서 보장하므로 체육인들이 운동에만 열중할 수 있는 기틀을 제공하고 있다.

## 5) 집단체육의 강화

북한의 체육활동은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실시하고 있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다. 북한에서는 집단체육을 모든 인민들에게 단결심과 복종심을 심어주고 사회와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배양하여 국가체제를 유지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에서도 그대로 나타나 있는데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에서는 모든 학생들의 개인주의와 이기

주의를 없애고, 집단주의 원칙에 따라 사회와 인민의 이익, 당과 혁명의 과업을 위하여 몸 바쳐 투쟁하도록 교양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집단주의 원칙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종목으로는 주로 집단달리기, 집단체조 등이 있다. 집단달리기는 직장별 소규모의 집단달리기 뿐만 아니라 수십만 명이 참여하는 혁명 전적지로의 대규모 집단달리기를 통해 당 정책 교양과 혁명 전통교양, 그리고 공산주의 교양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인민의 체력증진은 물론 유일사상을 고취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집단달리기는 각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사무기관 등에서 실시하며 대부분 혁명전적지, 사적지를 출발하여 대규모 집회가 열리는 평양에 도착하는 것으로 단결력과 집단주의 효과를 도모하는데 그 의미를 두고 있으며 대표적인 집단달리기는 ‘김일성 수령께 드리는 충성의 편지 전달 이어달리기’, ‘배움의 천리길 이어달리기’, ‘조국통일 달리기’ 등이 있다.

집단체조는 체육과 사상, 예술을 종합적으로 배합한 북한 특유의 대중적인 체육활동으로 북한의 백과사전에서는 집단체조를 “학생들에게 생생한 체육화폭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영도의 현명성, 당 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인식시키며, 집단주의 정신과 고도의 조직성, 높은 규율성과 예술적 재능을 함양시키는데 효과적인 활동이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에서 실시하는 집단체조는 대중적 체육활동을 적극 발전시킨다는 방침으로 과외체육활동을 통해 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집단체조를 통해 혁명사상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이야기 중심으로 엮어 내고 있고, 수만명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일종의 매스게임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집단체조는 매년 각종 체육행사 외에 김일성 생일, 정권수립일, 조선노동당 창건일 등 정치적 행사에서 실시됨으

로써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 북한은 집단체육을 중심으로 하는 아리랑축전을 개최하여 외국인의 관람을 허용하는 등 관광자원화를 시도하기도 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북한에서는 체육정책은 '새로운 공산주의 인간육성'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모든 체육활동은 김일성의 교시에 따라 김정일이 지시하고 당의 방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북한도 근래에는 지난 수십년간 체육정책의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던 국방체육이 공산주의적 사상을 고취시키는데 한계를 느껴 대중체육을 통한 국방체육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체육정책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과거에 자본주의적 스포츠, 부르주아적 스포츠 종목이라고 비판해 왔던 야구, 볼링, 골프, 스키 등에 대해서도 지난 1980년대 후반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하여 김일성이 사망한 1994년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보급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최근에 북한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중체육 종목으로 대중윙동체조(에어로빅), 건강태권도, 사격, 롤러스케이트, 예술체조, 축구, 볼링, 야구 및 소프트볼, 민속놀이 등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1993년 대중 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어린이와 노약자를 대상으로 건강태권도 57개 동작과 대중윙동체조 15개 동작을 개발 보급하고 있으며 1995년 8월 어린이용 건강태권도와 대중윙동체조 10가지 106개 동작, 노인용 대중윙동체조 9가지 70개 동작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 제2장 북한의 체육교육과 선수양성



주제가 있는 통일문제 강좌 21

## 제2장 북한의 체육교육과 선수양성

### 1. 체육교육

#### 가. 체육교육의 목적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에서의 체육의 개념은 신체를 다방면적으로 발전시키며 집단주의적 정신과 책임성 등 고상한 사상과 도덕적 품성을 개발함으로써 국방력을 강화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이다.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 제43조의 “국가는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운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1977년 김일성이 발표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서는 공산주의 혁명화, 노동계급화 하여 지덕체를 겸비한 공산주의적 인간을 만들기 위하여 사회주의 교육의 내용으로 정치사상교양, 과학기술교육과 체육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김일성은

조선의 체육은 조선의 자주독립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건국사업의 일환으로서 발전하여야 할 것이다. 즉, 민주조선을 건설할 씩씩한 건국투사들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민들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단결시키는 전인민적 체육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의 체육교육 목적은 학생들로 하여금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노동과 국방에 더 잘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해 사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단련시킴으로써 전신을 조화적으로 발전시키고 건강한 체질과 기민한 육체적 가동성을 소유시키며 기초적인 운동기능과 체육기술을 숙달시키는데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의 체육교육은 지덕체를 고루 갖춘 공산주의적 새 인간을 육성하는 사회주의 교육의 필수적 구성부분이다. 즉, 북한에서 체육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며 학생들을 사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단련된 혁명투사로 또는 공산주의 건설자로 육성하는데 있어 중요한 교육활동이다.

특히 북한에서는 후대들을 혁명과 공산주의 건설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혁명적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체육교육을 강조하고 있는데, 1977년 김일성이 발표한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통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들의 튼튼한 체력은 혁명투쟁과 부강한 사회건설의 기초이다. 체육교육을 잘하여 청소년들의 체력을 튼튼히 키워야 혁명과 건설을 힘 있게 밀고 나 갈 수 있으며 나라의 위력을 강화할 수 있다. 체육교육은 청소년들의 체력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상의지를 단련하며 문화수준을 높이는 데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청소년학생들은 체육활동을 통하여 용감성과 대담성, 강인한

투지와 인내성을 키우며 체육기교와 문화적 소양을 높인다.”(김일성,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중에서, 1977)

또한 체육교육의 필요성은 북한의 사회과학출판사가 1975년 펴낸 ‘주의주체사상에 기초한 사회주의 교육이론’이란 책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후대들의 혁명투쟁과 부강한 사회건설의 기초인 건장한 체력을 향상시킨다, 둘째, 후대들의 신체의 조화로운 발전과 건강을 보장하며 인내성과 지구성, 투지력과 왕성한 정력과 패기를 길러줌으로써 그들을 어렵고 복잡한 혁명투쟁과 건설 사업에 튼튼히 준비시킨다. 셋째, 후대들에게 건장한 체력을 육성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사상의식과 도덕으로 무장시키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 넷째, 후대들에게 집단주의 정신을 배양하는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다섯째, 후대들의 지적발달과 과학기술 습득을 위한 사업을 뒷받침하는데 큰 의의를 갖는다. 여섯째, 학생들의 신체적 조화로운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지적 발달의 건전한 생리적 기초를 마련하게 하며 과학기술 습득을 위한 완강한 투쟁의 육체적 담보를 마련하게 한다. 일곱째, 후대들을 노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는데 있다. 여덟째, 사회의 주인이며 생산력의 결정적 요소인 사람들의 노동능력을 키우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여 노동숙련과 경험을 쌓는데 필요한 기능훈련을 형성시켜 학생들을 현대생활의 요구에 맞게 튼튼히 준비시킨다.(사회과학출판사편, ‘주의주체사상에 기초한 사회주의 교육이론’, 1975)

이상을 토대로 북한에서 체육교육을 강조하는 근본 이유를 살펴보면 사회주의 교육에서 추구하는 지덕체를 겸비한 공산주의자

에게 건전한 사상의식과 풍부한 과학지식을 습득하고 학교에서 배운 과학과 기술을 실지사업에 응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장한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체육교육은 다양한 체육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이 건장한 체력을 소유하는데 가장 효과적 정책수단이라 할 수 있다.

## 나. 체육교육의 내용

### 1) 소학교의 체육교육

북한의 체육교육은 사상 및 이념, 노동과 국방을 연계하는 상호 밀접한 관련성을 갖으며, 국가의 주도적인 관리·감독 하에 전개되고 있다. 북한의 각급 학교의 일반적 체육교육 내용의 기본 종목은 구기 및 기본운동으로 축구, 배구, 농구, 철봉, 육상 등과 민족체육 종목인 널뛰기, 그네뛰기, 줄다리기, 집단체조, 집단달리기, 해양체육종목, 키 크기 운동, 국방체육 종목 등이 실시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소학교의 체육교육과정은 1954년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하였으나 체육은 총 수업 수에서 10%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소학교에서의 체육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러 가지 걷기, 달리기 및 체력증진과 유일사상 고취를 위한 내용으로 구성하였고, 붉은 기 쟁취를 위한 혁명전적지 달리기, 김일성 원수님 배움의 천리길 이어달리기, 김일성 수령님께 드리는 충성의 편지 전달 이어달리기, 정일봉 달리기 등 집단 달리기를 실시하고 있다.

둘째, 수업의 시작과 끝날 때 3~5분간 차려, 열중쉬어, 행진과 정지, 제자리에서 방향 전환을 배우며, 상급 학년에서는 대형에서 대열정돈의 증감과 행진 간의 방향전환 등 군대식의 제식 훈련을 실시한다.

셋째, 모래주머니, 각종 공 종류, 모의 수류탄, 단봉 등을 도구로 하여 상급학년에서는 목표물에 정확히 던지기와 이동하는 목표 맞히기를 실시하며, 저학년에서는 정해진 자리에 정확히 던지기와 멀리 던지기 등을 실시하며, 이것은 국방체육을 기르기 위한 것이다.

넷째, 고학년의 경우 40도 사다리 오르기, 가는 봉 오르기, 수직 봉 오르기를, 저학년에서는 낮은 철봉에 매달리기, 매달려 팔굽혀 펴기, 흔들기 등을 실시하여 오르내리면서 근력을 단련시킨다.

다섯째, 동계 체육을 하는데, 저학년에서는 눈에서 활동하는 습관 익히기를, 고학년에서는 눈썰매나 스키 타기를 배운다.

여섯째, 매년 6~7월을 해양체육 보급 기간으로 정하여 수영, 수구, 각종 배 타기, 도장 훈련, 해상 수기 신호 등을 익히며, 수영은 소학교 3~4학년 기준으로 50m이상(2007년말 현재 기준) 숙달하도록 하고 있다.

일곱째, 키르기 운동을 전개하는데, 매년 연간 계획을 세워 학생들의 키를 점검하여 일정한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집단체조, 달리기, 멀리뛰기, 높이뛰기, 철봉, 배구, 농구, 평행봉, 줄넘기, 수영 등을 집중 실시한다.

여덟째, 체조와 달리기, 뽀뛰기 등 육상종목을 비롯하여 축구, 농구, 탁구, 배구, 궁도 등 구기가 주종을 이루며 계절에 따라 수영, 스케이트, 그네뛰기, 널뛰기, 사격, 수류탄 던지기, 모형항공, 화기 분해, 독도법 등 국방체육 종목을 실시한다.

## 2) 중학교의 체육교육

중학교 체육교육은 1~4학년에서는 1주일에 2시간, 5~6학년에서는 1시간의 시간이 배당되는데 주로 달리기, 철봉, 평행봉, 링, 축구, 배구, 농구 등 각종 경기종목을 실시하고 있다. 소학교와 마찬가지로 집단 달리기와 집단 체조가 실시되며, 도시 학교의 경우 토요일을 체육의 날로 정하고 제식훈련과 사격 및 군사 기자재 조작 요령을, 농촌학교의 경우 농한기에 사격과 산악행군을 실시하며 작업 중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수기신호, 방향 판정법, 응급조치법 등을 배우고 있다.

체육수업에 실시하는 실기종목은 대부분 키를 크게 하고 골격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종목이다. 북한에서 설정한 키크기 운동 종목으로는 철봉, 평행봉, 배구, 농구, 집단달리기 등의 육상운동, 체육무용, 기계체조 등의 체조운동 등이 있다. 중학교의 체육교육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달리기와 체조운동을 강조한다. 달리기와 체조는 체력단련의 기본으로 심장을 튼튼하게 만들며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몸을 균형적으로 발전시켜 준다. 만경대 달리기, 배움의 천리길 달리기, 아침체조와 업간체조 등의 있다. 특히 체조운동은 몸매를 곱게 하고 조화롭게 발달시키며 신체의 유연성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체육활동으로 학생들의 성별, 연령, 건강상태와 육체적 준비 정도, 시간과 장소 등에 크게 구애됨이 없이 누구나 쉽게 실시할 수 있으며 세부종목으로 집단체조, 예술체조, 체육무용, 기계체조 등이 있으며 육상운동은 일상생활과 다양한 체육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육체적 능력과 기능을 다방면적으로 향상시켜주는 운동이다. 특히 육상운동은 특별한 체육시설이나 기자재 없이 누구나 참가하여

쉽게 할 수 있는 대중적인 체육활동이다.

둘째, 구기운동 및 계절운동을 강조한다. 구기운동은 뼈를 튼튼하고 빨리 자라게 하며 키크기 운동에 적합한 종목이라며 강조하고 있다. 또한 신체에 충격적인 힘을 주며 운동동작들이 비교적 세밀하고 복잡하게 구성되며 동작이 수시로 변화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학생들의 민첩성과 판단력을 향상시켜 주는 체육활동으로 배구, 농구, 탁구 등을 강조하고 있다. 계절운동은 신선한 자연 속에서 활동적으로 진행되는 근육, 골격, 피부, 호흡기 계통, 심장혈관 계통 및 신경계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운동으로 자연지리적 조건과 계절적 변화에 적응하게 학생들의 몸을 단련하여 노동과 국방활동에 준비하게 하는 체육활동으로 보고 있다.

계절운동 종목으로 수영, 스키, 스케이트 등의 종목이 있으며 수영은 여름에 주로 실시하며 몸을 균형적으로 발달시키며 체력을 단련시키고 의지와 담력을 키워주며 피부를 단련하고 내장기관들의 기능을 높여주는 데 효과적인 운동으로 스키와 스케이트는 계절적 변화에 신체를 적응시키며 어떤 추위에서도 이겨 낼 수 있는 강한 체력을 가지도록 하는 운동으로 간주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7~8월을 해양체육월간으로 규정하고 학생에게 수영, 수구, 다이빙 등 해양스포츠를 체계적으로 보급시키고 있다. 해양체육활동을 통해 수영은 모든 학생들이 졸업까지 500m이상(2007년말 현재 기준) 자유롭게 수영할 수 있도록 강조하고 있으며, 수영이외에 수구, 각종 배타기, 도하훈련, 해상수기 등 다양한 해양체육 종목의 기초지식을 습득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국방체육을 위주로 하는 군중체육 종목을 실시하고 있다. 북한에서의 국방체육은 국방활동에 적응할 수 있는 강한 체력과 인



내력을 키워주며 군사기술과 군사동작에 익숙하도록 하여 애국주의 정신과 용감성, 대담성을 길러주는데 중요한 목적을 두고 있다. 행군을 통해 용감성과 대담성을 기르며 산악지대에 대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어 군사기술자재들과 그 모형을 가지고 장애물 이겨내기, 담벽 뛰어넘기 등을 같이 실시하고 있다.

넷째, 민족체육 운동을 강조한다. 민족체육 종목인 그네뛰기, 널뛰기 등은 골격을 발달시키고 힘을 키우며 인내성과 용감성을 배양하고 민족적 자부심을 높여 주는 운동으로 평가하면서 널뛰기, 그네뛰기, 줄다리기, 씨름 등을 민족체육경기 종목으로 지정하고 각종 체육대회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하여 실시하고 있다. 특히 널뛰기는 활달하고 낙천적인 여성들의 생활감정에도 맞고 다리 힘을 키우며 몸매를 곱게 해주는 민속놀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민속놀이인 제기차기, 줄넘기, 고무줄놀이는 청소년들이 팔다리를 비롯해 온몸의 근육을 발달시켜줄 뿐 아니라 공중에서 자기 몸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과 용감성 대담성을 길러주는 등 체력 및 정신력 강화에 효과적인 운동이라 강조하면서 청소년 학생들에 적극 권장하고 있다.

다섯째, 키크기 운동이 강조되고 있다. 키크기 운동은 소학교와 중학교에서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실시하고 있는 체육활동으로는 높이뛰기, 철봉 매달리기, 배구, 농구, 달리기, 줄넘기 등을 키를 크게 하는데 적합한 종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종목들은 뼈의 성장을 돕고, 신경계통의 활동을 촉진시켜주는 운동으로서 북한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과학적이며 조직적인 운동을 통해 학생들의 신장을 향상 시킨다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각급 학교에서는 매년 연간계획을 세워 학생들의 키를 점검하여 일정한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키크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키크기 운동에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의식을 높이고 키크기 운동을 효과적으로 추진시키기 위해 일정한 기준치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군 입대 보류와 대학입학자격을 취소하는 등 강경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매일 40~90분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키크기 운동 종목으로 농구를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농구는 어디서나 할 수 있는 키크기 종목의 하나라고 선전하고 있다. 농구경기는 팔과 다리, 허리뼈의 신축 이완작용을 늘려 근육과 뼈에 영양물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어 키 크기에 상당한 효과가 있으며, 호흡기 및 소화기 계통 등 신진대사 기능을 촉진시키며, 청소년들에게 강한 의지와 집단주의 정신을 배양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권장하고 있다.

여섯째, 집단체조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집단체조는 체육의 대중화라는 명분 아래 체육교육의 중심과목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유치원생 때부터 실시하며 단결력뿐만 아니라 운동량이 많아 키가 쑥쑥 자란다고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집단체조는 체육의 대중화와 주민들을 단합시키는 수단으로서 매일 아침 학교수업이 시작되기 전 30분씩 또는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실시하며 토요일이나 전 인민이 참가하는 체육의 날(매월 둘째 일요일)에는 모든 학생들이 참가하여 집단체조를 실시한다.

각급 학교에서는 당 창건기념일이나 김일성 생일행사와 같은 대규모 행사시 진행되고 있는 하나의 집단체조에 5만 명 이상의 학생을 동원시키며 이를 완성하기 위해 5개월 또는 6개월 동안 학업을 전폐하다 시피하고 매일 운동장에서 하루에 6~7시간 이상 연습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집단체조는 체육의 대중화와 주민들을 단합시키는 수단으로 소학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실시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것처럼 북한의 중학교의 체육은 소학교에 비해 학교체육의 비율은 낮지만 그 교육의 강도는 더 강화되고 있다. 북한은 특히 10~15세에 해당되는 중학교 과정의 시기는 청소년들의 신체적으로 가장 발육이 왕성한 때이므로 학교체육 활동의 중심으로 삼는데 주력하고 있다. 중등교육 과정에서 북한은 체육교육을 통하여 한 종목 이상 높은 운동기능을 습득하고 2개 종목 이상의 경기 심판 능력을 배양하는 것 외에 군중체육 발전을 위한 기초 능력을 강화할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의 일상적인 체육활동은 대개 매주 토요일과 매일 학교 수업이 끝난 뒤에 실시되며, 시설은 주로 학교 운동장이나 시·군별로 학생들의 과외 체육을 지도하기 위하여 설치된 과외체육학교를 이용하고 있다.

과외체육학교는 학생들이 과외활동의 중심으로서 시·군, 구역 등에 1개씩 설치되어 있는 체육회관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학생들은 자기의 연령, 취미, 소질에 맞는 종목에 편성된다. 과외체육학교에는 일반 과외체육학교, 해양 과외체육학교 및 국방 과외체육학교가 있다. 이곳의 모든 체육 기자재는 국가에서 제공하며 인민체육인, 공훈체육인 및 체육지도원 등이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북한의 체육교육은 육상, 체조, 각종 구기운동, 민족 체육종목, 동하계종목, 국방체육, 집단체육 등과 같이 체육 본연의 본질적 기능의 수행 이외의 다양한 목적성을 충족시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 다. 남북 체육교육의 비교

남북한 체육교육의 성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찾

아볼 수 있다.

첫째, 남한은 체육교육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기초한 심신이 건전한 민주시민 육성을 대전제로 설정한 반면에, 북한은 체육교육을 통해 주체사상 이념에 근거한 강건한 육체를 소유한 사회주의 새 인간 육성을 전면에 부각시키고 있다. 이는 자율성과 다원성이 보장된 민주주의 이념과 통제 및 전체성, 집단성에 근거한 사회주의 이념의 확연한 구분에서 오는 차이로 볼 수 있다.

둘째, 남한의 체육교육은 본연의 교육적 기능과 가치를 지향하는 교육의 한 분야로서 충실한 목적성을 갖는 반면에, 북한의 체육교육은 노동과 국방과 혁명의 결합을 매개하는 다중목적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남한의 체육교육은 신체를 통한 교육을 강조하는데 비해 북한은 체육교육을 통한 노동생산성 증가와 국방력 강화 및 혁명인재로의 양성이라는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 남한의 체육교육은 자율성, 개별성, 개방성 및 다원성에 기초한 개인의 자율과 선택을 통한 평생체육의 일환으로 강조되나, 북한은 경직성, 집단성, 통일성의 특성 아래 국방 및 군중체육의 일환으로 강조되고 있다.

또한 남북한 체육교육과정의 운영상에 나타나는 차이점도 찾아볼 수 있는데 북한은 체육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집단주의 정신 고취를 위한 집단달리기, 집단체조, 키크기 운동 등과 같은 체제이념의 특수성에 기인한 교과과정 편성이 주목되는 특이점으로, 이러한 모습은 남한의 체육교육 과정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북한 체육교육의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북한의 체육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널뛰기, 그네뛰기 등과 같은 민속체육활동의 교과과정 내 편성은 이념적 차이를 떠나 전통문화의 계승 및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의미 있는 내용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우리도 투호 또는 민속무용 등과 같은 선택활동이 존재하나 그 비중 등에서 북한의 민속체육활동에 비하면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 2. 선수양성 및 대우

### 가. 선수 양성체제

북한에서 선수를 발굴 육성하는 체제로는 체육소조, 청소년 과외체육학교, 체육대학, 체육학원, 고등체육학교 그리고 체육선수단(이하 체육단) 등이 있다. 체육소조는 운동에 관심이 있는 학생을 중심으로 학교에서 이루어지며, 청소년 과외체육학교는 각 지역에 위치한 체육관이나 학생회관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전문지도자에 의해 체계적인 훈련을 받는 일종의 스포츠클럽의 형태다. 체육학원과 각 도에 위치한 3년제 체육전문학교 그리고 평양체육대학은 엘리트스포츠의 산실로 종목별 전문 훈련을 받는 일종의 체육영재 교육기관이다. 중앙기관에 설립된 중앙체육단, 도(직할시)체육단 그리고 겸직 체육단은 성인 중심의 엘리트스포츠 기관으로 대표선수 양성을 목적으로 하며 일과 운동을 병행하거나 운동에만 전념하는 일종의 실업팀 형태로 운영한다.

운동선수 육성은 체육교사 및 종목별 지도자에 의해 학교, 공장, 협동농장 등 현장에서 발탁되거나 개인이 학교체육소조 활동에 참가하는 것이 운동선수로 입문하는 일반적인 형태이다. 또한 운동 기능이 우수하거나 유망선수로 인정받을 때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으며 각종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대학 및 실업팀

감독들로부터 발탁되어 직업 운동선수로 성장하거나 대표선수로 선발된다.

## 1) 학생선수

### (1) 전문체육소조

북한에서는 청소년들의 체력을 단련시키고 우수선수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자 학교 체육 사업을 강화해 왔으며, 1974년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학교별 종목별 전문화를 강조하면서 학교 내에 축구, 탁구, 배구, 체조 등 17개 종목 가운데 학교별 특성에 따라 1종목 이상 전문화 체육소조를 의무적으로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다. 학교에서 실시되는 체육소조는 소학교와 중학교에 일반화 되어 있으며 운동선수로 입문하는 초기 단계로서 각 학교마다 2~3개의 종목별 소조가 설치되어 있다.

학교별 종목 선정은 주로 학교 체육교원의 전공에 따라 종목이 결정되며 체육 교원이 직접 지도하며 참가인원은 종목별로 차이가 있고 구기종목은 30~4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 소학교 및 중학교 체육소조 활동은 운동기능이 우수한 선수를 발굴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학교운동부 형태를 의미한다.

체육소조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은 정규 수업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운동은 방과 후 매일 2~3시간 이상 1주일에 6일간 학교별로 지정된 학교체육소조 활동에 참석하여야 한다. 특히 중학교에서는 다양한 체육소조 활동을 통해 스포츠 기술 및 체력 향상 등 신체적 능력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집단주의 정신과 조직성, 규율성 등 정신적 능력을 함께 강조하고 있다.

### (2) 과외체육학교(체육구락부)

과외체육학교는 정규체육기관은 아니지만 학생들의 과외 체육 활동의 중심으로 시, 군, 구역에 1개씩 설치되어 있는 체육회관을 중심으로 축구, 농구 등 구기를 비롯하여 육상 및 투기 종목 등 20여 종목의 체육소조가 조직 운영되고 있다. 체육소조 활동에 필요한 체육 용품 및 기구는 모두 국가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며 해당 시, 군 인민위원회에 직속되어 있으며 도(시) 인민위원회와 체육위원회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과외체육학교는 운동선수를 지망하는 학생들이 정규 수업을 마치고 전문종목 교육 및 훈련을 받는 체육교육 기관으로 지역 내 체육관 및 학생회관 등 사회체육시설에서 전문적으로 훈련시키는 일종의 클럽스포츠 운영체제라 할 수 있다.

과외체육학교는 학생 중 운동에 특기나 소질이 있는 8~16세 소학교 및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령, 취미, 소질에 맞는 종목에 편성시켜 방과후 종목별 기초기술훈련을 받도록 한다. 교육은 인민체육인, 공훈체육인 및 체육명수 등이 담당하며 교육과정은 체육이론과 기술동작, 체육생리학 등 체육에 대한 기본원리 교육과 실기를 연간 500시간 이상 실시한다. 과외체육학교에 대한 교육성과는 매년 개최하는 전국 과외체육학교 경기대회에서 평가를 받는다.

과외체육학교는 1990년 체육구락부를 개명하였고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육성시켜 체육유망주 발굴을 목적으로 하며 교육과정은 5년으로 북한 엘리트스포츠의 산실로 평가되고 있다. 1993년까지 경원군 과외체육학교, 평안남도 강서군 과외체육학교, 평양시 서성구역 과외체육학교 등 약 230여개의 과외체육학교가 조직 운영되고 있으며 인민체육인 3명, 공훈체육인 18명, 체육명수 약 40명을 각각 배출한 평양시 서성구역, 애틀란타올림픽 여자 유도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계순희 선수를 배출한 모란봉구역, 1990년대 북한 탁구계를 주도한 이근상과 김성희, 아테네올림픽 권투종목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김성국 선수를 배출한 평양 중구역 청소년 과외체

육학교가 유명하다.

과외체육학교는 전문선수를 육성하는 이외에 당의 체육정책을 실현하며 지역단위에서 열리는 경기대회 등 체육행사를 계획하고 주관하며 지역체육발전을 위한 일종의 생활체육도 담당한다는 의미에서 볼 때, 남한의 사회체육센터 및 구민체육관 등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 (3) 체육학원

북한은 체육영재를 위해 각 시도에 체육학원을 조직 운영하고 있다. 소학교 졸업생과 중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여 교육하는 기관으로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8년제 남포체육학원(중앙체육학원)과 7년제 양강도 체육학원, 함남 체육학원 등이 있다.

남포(중앙)체육학원은 북한의 대표적인 체육학원으로 소학교에서 우수한 체력과 특기를 가진 학생들이 입학하는 8년제 초급 체육전문학원으로 1977년 남포시 남포 체육촌내에 건립하였다. 이학원은 소학교 학생 가운데 체육에 소질이 있는 어린이를 선발하여 사상훈련과 체육훈련을 병행하여 우수 체육선수로 양성하여 국가대표 후보선수를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경기종목으로는 축구, 농구, 배구, 탁구, 핸드볼, 육상, 체조, 권투, 유도, 레슬링, 수영, 빙상, 수구, 아이스하키 등 17개 종목을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의 소질에 따라 종목을 선택한다. 졸업 후에는 소학교와 중학교 체육교사로 근무할 수 있고 한 가지 이상의 경기심판자격을 획득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있다. 졸업 후 소학교 및 중학교 체육교사 자격증을 부여하고 체육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다.



#### (4) 고등체육전문학교

고등체육전문학교는 김일성의 지시에 따라 각 도에 설치된 스포츠학교를 폐지하고 1972년부터 각 도에 1개교씩 설립한 3년제 체육전문학교로 국가대표선수 선발 및 체육교원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중학교를 졸업한 체육특기자 중에서 일정한 선발고사를 통해 입학한 학생을 중심으로 체육지도자들이 연간 300일 훈련계획을 세워 월별, 분기별로 체력과 기능을 평가하여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유급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매년 평양에서 열리는 전국고등체육전문학교 체육대회에 출전하여 우수선수로 선발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학교의 명예심과 경쟁심을 유도하기도 한다. 또한 우수한 기능과 뛰어난 체력을 소유한 학생을 대상으로 12월에 개교하여 국가 대표선수 후보 양성을 목표로 특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다. 정규 교육과정을 마치고 졸업한 학생에 대해서는 소학교 체육교원이나 각 도 대표단에 배치되어 선수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선수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북한은 1998년부터 태권도를 장려하면서 각도와 직할시에 전문적인 태권도 학교를 설립 운영하고 있다. 2002년 제5차 정일봉상 전국태권도선수권대회부터 태권도 학교 소속선수들이 중학교와 대학교로 구분하여 출전하고 있다. 태권도 학교설립은 태권도 경기력 향상은 물론 민속경기를 통한 대중체육 활성화를 마련하고 민족의 정통성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운영하고 있다.

#### (5) 체육대학

북한은 1993년 이후 평양체육대학을 비롯하여 남포체육대학,

김책체육대학, 금강산체육대학, 평성체육대학 등 각 도(직할시)에 1개교씩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육과정은 보통 소학교 졸업 후 13세에 바로 예과에 입학하게 되며, 중학교를 졸업한 후 입학하는 경우도 있다. 일단 입학하게 되면 3년간 예과과정을 수료하고 전문부 3년 과정(평양체육학원)을 거쳐 학부에 진학하여 4년간 평양체육대학에서 교육을 받는다. 주요 교과목으로는 체육이론, 운동해부학, 체육생리학, 운동역학, 체육의료학 등 기초 체육이론과 실기과목으로 편성되어 있다. 졸업 후에는 체육교원 및 각 시도 과외체육학교, 체육선수단에서 지도자 생활을 하거나 국가대표선수로 활약하기도 한다. 한편 각 도(직할시)에 있는 체육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과외체육학교 출신으로 필기 및 실기시험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으나 실기시험이 합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체육대학을 졸업할 때 우수한 실력을 갖춘 졸업생은 중앙이나 지방의 체육선수단에 입단하여 전문운동선수 생활을 하지만 실력이 부족한 학생은 대부분 졸업 후 체육교사로 활동한다. 사범대학 체육학과를 졸업하면 중학교 체육교사로, 교원대학 체육학과를 졸업하면 소학교 및 유치원 체육교사로 진출한다.

평양체육대학은 엘리트스포츠의 산실로서 중학교 시절 각종 경기에서 뛰어난 경기력을 발휘한 특기생을 위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평양체육대학은 체육분야의 최고 교육기관으로 우수선수뿐만 아니라 고급 체육지도자를 배출하는 기관이다. 코치를 양성하는 5년제의 지도자 학부와 체육교원을 양성하는 4년제의 사범학부 및 집단 체육학부로 구성되어 있다.

평양체육대학은 분야별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는 차원에서 공업 계열의 김책공대, 인문 계열의 평양외국어대와 함께 북한의 3대 명문 특수대학으로 인정받고 있다. 평양체육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

는 어려서부터 운동기능 및 소질과 뛰어난 실력을 발휘하고 당과 혁명을 위해 충실히 복무할 수 있는 자질을 인정받아야 하며 출신 성분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당성도 고려되고 있다.

이처럼 북한의 학생선수는 정상적인 교육을 받드시 받고 방과 후 학교 체육소조 활동에 참여하거나 과외체육학교에서 종목별 특별 훈련에 참가하도록 되어 있다. 북한에서는 학교체육이 군중체육 및 엘리트체육을 생활화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운동선수로 활약하다 기능이 부족하거나 부상 등의 이유로 운동을 포기한 선수에게 체육교원이나 체육지도자로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학생선수가 졸업 후 운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체육대학에 진학하거나 체육단에 입단하여 전문가로부터 체계적인 훈련을 받게 하여 우수선수로 육성될 수 있도록 혹은 대표선수로 선발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나 북한 경제사정으로 인한 경제적 지원 미흡, 국제 경협을 위한 해외 원정 경기 제한 및 통제, 열악한 훈련 환경과 용품 및 기구 낙후, 선진 스포츠 국가에 대한 정보 미흡, 창의적 사고 결여 등이 학생선수 육성에 있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 2) 일반선수

북한에서는 학생선수를 조기에 발굴 육성하여 체계적으로 운영 하는 것이 성인 엘리트체육을 발전시킨다는 인식을 하고 있으며 학교체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남한의 학생선수는 주로 학교 운동부를 통해 육성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북한은 방과 후 체육소조활동과 지역별 체육학교에서 전문지도자의 체계적인 지도를 받고 있다.

학교 졸업 후 경기력이 뛰어난 선수들은 국가 대표선수로 선발되어 훈련을 받거나 국가종합체육단(평양)과 각 시, 도 단위에서 운영하는 체육선수단에 입단하여 선수생활을 하며 경기력이 떨어지는 선수는 군대에 입대한다.

북한의 체육단은 직업적인 체육인 양성과 훈련을 위해 조직된 것으로 우리나라의 실업팀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최고 수준의 우수선수를 배속시켜 전문체육기구로 운영하는 중앙단위의 체육단이 20여개가 있고, 기타 각 도에 구성된 선수단을 포함하면 전체적으로 약 40여개에 이른다.

현재 북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 체육단은 특정종목에 편중된 팀의 구성이 아니라 전 종목에 걸쳐 선수들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1개 체육단의 규모는 보통 500여명 내외로 비교적 대규모이다. 체육단간 대항리그를 통해서 최우수 선수를 국가대표로 선발하며,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되면 국제대회 출전 3~5개월 전에 평양 등 종합훈련소에 입소하여 기술을 익히기 위한 경기위주의 훈련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일반선수 양성체제의 핵심이 되는 체육단으로는 4·25체육단, 2·8체육단, 기관차체육단 등이 있는데 이들을 중심으로 북한의 체육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4·25체육단

1947년 3월 조직된 중앙체육지도위원회 산하 중앙체육강습소 체육단으로 출범한 북한 최대규모의 체육단이다. 당시 중앙체육강습소는 전 종목에 걸쳐 북한의 국가대표선수 양성 및 훈련을 맡아왔다. 4·25체육단은 1971년 6월 현재의 명칭으로 개칭되었는데, 4·25란 김일성이 항일 혁명투쟁시 조직했다는 조선인민혁명군의 창건일에서 따온 것이다.

현재의 4·25체육단은 인민군 소속으로 군사 훈련 못지 않게

강도 높은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종목 특성상 사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1972년 뉴델리 아시안경기에서 사격 7관왕에 올랐던 서길산이 4·25체육단 소속이었으며 선수단의 규모는 600여명에 이른다.

## (2) 2·8체육단

4·25체육단과 쌍벽을 이루는 북한의 대표적인 체육단으로서 1959년 4월 내각 민족보위성 소속으로 창단되었으며, 1968년 2월 8일 현재의 명칭으로 개칭되었다. 여기서 2·8이란 북한 인민군 창건일인 2월 8일에서 따온 것으로 이 체육단 역시 인민군 소속으로 되어 있다. 현재는 20여개 종목에서 500여명의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다.

2·8체육단 소속으로는 1972년 뮌헨올림픽 소구경속사 사격종목에서 세계신기록을 기록하며 1위를 한 이호준이 유명하다.

## (3) 기관차체육단

1950년 내무성 소속으로 창단되었다가 1974년 기관차 체육협회 철도성팀으로 개편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61년 7월 모스크바 국제육상대회에서 여자 400m, 800m에서 1위를 차지하여 세계육상계를 놀라게 했던 신금단과 1990년 4월 국제 역도선수권대회 67.5kg에서 세계신기록(162.5kg)을 세운 김명남이 기관차체육단 소속이었다.

## (4) 지역체육단

평양시 등 직할시와 도에 설치되어 있으며, 국가체육위원회의 지도 감독 하에 해당 시도인민위원회를 대표하고 있다.

지역체육단 중에서는 평양시체육단이 가장 유명하며, 평양시체육단은 1991년 남한으로 귀순한 이창수가 소속한 체육단이다. 이창수는 1988년 체코 유도선수권대회 71kg급에서 1위를 차지한 선수이다.

## 나. 선수선발 및 훈련

북한에서 운동선수 육성은 우수선수를 조기에 발굴하여 집중적이며 체계적으로 훈련시키는 방법과 각종 체육경기에서 뛰어난 기량을 보인 선수를 발굴하는 방법을 병행하고 있다. 체육유망주를 조기에 발굴하기 위해 종목별 지도원들이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소학교 체육소조반, 소년학생궁전 및 회관의 과외체육학교에서 활동하는 유망한 선수를 발굴하거나 종목별 공화국 선수권대회와 매년 8월 전국과외체육학교 소속선수를 대상으로 개최되는 전국 과외체육학교생 체육경기대회, 체육단 및 선수단 체육대회에서 우수한 기록이나 뛰어난 성적을 올린 선수를 선발하는 방법이 있다.

과외체육학교 선수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가능하며 자신이 희망하거나 일정한 테스트를 통해 선발되고 체육대회에 참가하여 과외체육학교위원회 위원들에 의해 선발되며 전문화소소에서 활동하거나 체육학원에 진학하거나 중앙체육단에 입단하는 등 다양한 방법에 의해 선발한다. 체육단 선수선발도 중학교 선수 중에서 우수한 능력을 갖고 있는 선수를 중심으로 선발하며 재학 중인 학생인 경우 체육단 인근에 있는 학교로 진학시켜 오전에는 수업을 받고 오후에는 운동을 한다. 남한의 용인시에서 운영하는 용인축구센터와 유사하다. 한편 4·25체육단 선수는 중학교 및 체육대학 졸업에

정자를 중심을 선발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우수한 능력을 갖춘 중학교 재학 중인 선수도 선발한다.

체육유망주로 발굴된 선수는 기초체력 및 운동소질에 대한 검사를 받고 유망주로 인정되면 중앙의 전문체육단에 입단시켜 체계적으로 육성시킨다. 체육지도원에 의해 발굴된 선수와는 “도제(徒弟)형식”의 관계가 형성되어 대표선수로 성장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훈련과 통제를 받으며 개인의 체력 및 기술 수준을 측정하는 “자력카드”를 만들어 개별지도를 받는다. 이를 위해 체육지도원은 월별 훈련계획을 작성하여 설정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맹훈련을 시킨다.

운동선수 선발기준 및 방법은 국가 체육지도위원회 산하 체육과학연구소와 각 종목별 전문가들이 매년 실시되는 각종 국내 및 국제경기 기록과 성적을 종합 분석하여 우수한 자를 추천한다. 동일한 조건일 경우 가능한 연소자를 선발하며 투철한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되고 주체사상과 당에 대한 충성심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최종 선발한다. 선발된 유망 선수는 전문체육단에 입단하여 기능보다 기본기 중심의 훈련을 체계적으로 받도록 한다.

북한에서 국가대표선수로 선발되면 최소한 체육명수에 해당되어 일반 노동자의 월급보다 많이 받으며 생활보조비 명목의 부식비와 소속팀으로부터 월급을 받는 것 외에 훈련수당을 받으므로 생활여건이 크게 개선된다. 국가대표선수 선발은 매년 실시하는 전문 체육단 종목별 경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기록하거나 유망주로 부각된 선수를 선발한다. 특히 단체종목 대표선수는 감독을 선임한 뒤 감독이 후보선수를 선발하여 소속연맹에 보고하고 상무위원회(기술위원회) 심사를 통해 일부선수를 교체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감독이 선발한 선수를 중심으로 구성한다. 또한 기량이 미숙하지만 장래가 촉망되는 유망선수로 인정되면 대표선수로 발탁하여 경기 경험을 갖도록 한다. 국가대표선수 선발방법 및 과정은 남한과 유사하다.

학교체육소조와 과외체육학교의 훈련은 일요일을 제외한 주 6일하며 오전에는 수업을 받고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훈련하나 대회준비를 위해 수업에 참가하지 않고 오전부터 운동하는 경우도 있다. 체육단 훈련은 새벽운동과 오후운동을 하며 새벽운동에는 주로 보조운동 및 감각기능 익히기 훈련을 하며 체력운동과 기술훈련은 주로 오후에 실시한다. 오후 운동은 대개 2시부터 6시까지 실시한다.

## 다. 선수의 대우

세계 어느 나라든지 특정종목에 대해서 세계 최고수준의 경기력을 갖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해당종목에 대해 신기록을 수립하거나 권위 있는 국제대회에서 우승했을 경우 해당 선수에게 우승에 걸 맞는 대우를 해주는 경우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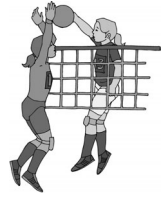
북한의 경우도 우수선수 등 체육인에 대한 사회적 지위와 사기진작, 그리고 노후의 생활문제 등을 보장해 줌으로써 우수한 선수를 양성 발굴하기 위한 체육인 우대정책을 주요 시책으로 삼고 각 시·도대표급 및 국가대표급 선수를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1급 이상 선수들에게는 직업체육인으로 대우하고 선수생활에서 은퇴할 경우 각 체육단이나 과외체육학교 지도원으로 일생을 체육 생활만으로도 영위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북한은 체육인들에 대한 사기 진작을 위해 세계기록 갱신자, 올림픽이나 아시아 경기대회, 그리고 기타 중요 국제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한 자와 북한내에서의 신기록을 수립하는 등 체육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는 선수에게는 체육인의 최고 영예인 인민체육인과 공훈체육인, 그리고 체육명수 등의 칭호를 수여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연금을 지급하고 각종 부상을 줌으로써 우수선수와 지도자에 대한 대우를 한층 제고 시키고 있다.

인민체육인 칭호는 체육부분에 수여하는 칭호가운데 최고의 영예로운 칭호로서 올림픽이나 세계선수권에서 우승한 선수나 지도자들에게 주어진다. 이 칭호를 받는 우수 체육인에게는 국기훈장 1급을 수여하며 노후 연금도 지급한다. 공훈체육인 칭호는 인민체육인 칭호 다음가는 영예 칭호로서 통상적으로 1년에 2회 이상 신기록을 수립했거나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자 또는 아시아 경기대회에서 우승한 자에게 주어지는 칭호이다.





## 제3장

# 북한의 체육조직과 시설 및 대회



주제가 있는 통일문제 강좌 21

## 제3장 북한의 체육조직과 시설 및 대회

### 1. 체육조직

북한의 체육행정 조직은 선수 위주가 아니라 각 직능별, 학교별, 기관별 조직내에서 충원되는 인원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이는 북한의 기본적인 체육정책인 대중화를 관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해방 후 북한의 체육행정 조직은 정부 및 각 정당·사회단체 대표로 구성된 중앙체육지도위원회와 각급 학교, 민주청년동맹(민청), 직업동맹(직맹), 농민동맹(농맹)에 소속된 체육단 등이 있었다. 이들 체육단의 구성원은 노동자, 사무원, 농민, 학생들인데, 이들이 체육·문화사업의 기본단위가 된다.

북한지역에서 최초로 결성된 체육조직은 1945년 11월 1일에 창설된 북조선체육동맹이었다. 이 동맹은 민간인 위주의 조직체로서 1946년부터 각 도별로 체육동맹이 조직되었다. 중앙기구로는 위원장, 부위원장과 총무부, 학교체육부, 일반체육부, 경기행사부, 기술부 등이 있다. 그러나 북한 체육행정을 실질적으로 움직인 것은 도

인민위원회였다. 당시 북한에는 소련 군정당국이 설치한 5도 행정국이 있었으나 행정기구로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고 실질적인 권력은 각 도의 인민위원회에 의해 행사되고 있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지방행정기관의 산만성과 지방 할거적 경향이 발생했고 그에 따라 북조선체육동맹의 각 도별 체육동맹이 결성되어 있었지만 체육행정 역시 각 도 인민위원회에서 주관하였다. 더구나 체육이 사회주의국가 건설의 도구로 이용되는 상황에서 북조선체육동맹은 당시 청년조직을 담당했던 민청조직과도 긴밀한 관계를 맺지 못했다. 결국 1946년 12월 17~18일 진행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는 북조선체육동맹의 해산을 결정했고, 1947년 1월에는 체육의 실제 사업을 집행하는 중앙지도기관으로 임시인민위원회 교육국에 체육부를 설치하고 북조선체육위원회를 조직하였다.

그러나 체육사업이 여전히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자 1948년 5월 29일 북조선중앙체육지도위원회를 비롯하여 각 도·시·군에 체육지도위원회를 조직했으며, 이듬해 7월에는 각 체육지도위원회에 심판부를 개편할 경기종목별 분과위원회를 설치했는데, 이때부터 북한의 체육행정 조직이 기본틀을 갖추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체육지도위원회는 직맹, 농맹, 민청 등 사회단체의 책임자들과 체육부문 지도자들로 구성되었으며, 중앙체육지도위원회는 각 시기별 경기대회를 제외한 자체 사업계획을 세우고 이를 각 분과위원회에서 진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행정업무 가운데 학교 및 군중체육사업은 내각 교육성 체육처에서, 지방체육행정사업은 도·시·군의 인민위원회 교육부에서 담당했는데, 도·군 인민위원회 교육부는 교육성의 지시를 직접 받는 동시에 해당 도·군 인민위원회의 지시도 받는 이중 명령계통 선상에 있었기 때문에 체육사업의

일원화는 쉽게 이룩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다시 1954년 6월 24일 내각결정 제93호로 내각 직속 체육지도위원회를 조직했는데, 이 체육지도위원회는 부분별, 직종별로 조직된 체육조직을 경기별 협회와 자립적 체육단체 등으로 개편하였다. 즉, 체육지도위원회 산하에 각 도(직할시) 체육지도기관과 경제분야별, 행정단위별, 학교별로 선수단을 조직하는 동시에 시(구역)·군에는 체육구락부(현 과외체육학교)를 두었다. 그리고 중앙 스포츠협회를 종목별로 구성하여 행정의 일원화를 도모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체육조직이 어느 정도 틀을 갖추어 가자, 북한은 국제교류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1959년 3월에는 체육지도위원회내에 국제부를 신설했다. 그리고 1962년 10월에는 내각결정 제57호 ‘체육기술수준을 급속히 제고할 데 대하여’를 채택하여 국제기구의 가입, 각국 체육조직 및 선수단과의 교류 등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를 위해 1963년 6월 3일에는 내각 직속 체육지도위원회를 조선체육지도위원회로 개편하여 독립기구로 만들었다. 이로써 조선체육지도위원회는 비로소 각종 체육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대외 체육사업을 위한 기능과 역할도 강화하였다.

1979년 9월과 10월에는 조선체육지도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 정무원의 부와 같은 급으로 격상시키고, 같은 해 11월 5일 정무원 지시 제217호에 따라 조선체육지도위원회가 체육사업에서 최대의 권한을 갖고 사업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를 취했다. 그런데 조선체육지도위원회와는 별도로 비상설기구인 국가체육위원회가 주요 체육사업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었다. 이에 김정일은 1989년

6월 2일 당중앙위원회 체육부문 책임자들과 한 담화에서 국가체육 위원회의 기능을 조선체육지도위원회로 넘겨 조선체육지도위원회가 체육사업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갖게 하고 그 명칭도 국가체육 위원회로 바꾸게 했으며 중앙인민위원회는 6월 29일 조선체육지도 위원회의 명칭을 국가체육위원회로 개칭한다고 결정하였다. 그 뒤 국가체육위원회는 1998년 9월의 헌법 개정으로 그 명칭이 체육성으로 바뀌어 내각의 직속부처로 편입되었다. 이에 따라 그 위상도 체육사업을 독자적으로 책임지고 집행하는 기관에서 내각에 부속된 기관으로 낮아졌으나 1999년 11월 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따라 다시 내각 체육지도위원회로 개칭되면서 모든 체육 사업을 책임지고 지도·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되찾아 그 위상이 강화되었다.

북한의 지방체육 행정조직으로는 시·도 체육위원회와 시·군(구역) 과외체육학교가 있으며, 각급 체육위원회는 중앙의 국가체육위원회가 제시하는 각종 운동 종목, 실시 방법과 요강을 직접 보급함으로써 실무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해당 인민위원회에 부과되는 체육부문별 과업을 수행하는 부서로서 당의 체육정책을 수행하며 관할 지역의 체육을 대중화하고 체육기술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조직·지도하고 있다. 동시에 관할 지역의 체육강습소와 체육시설 및 과외체육학교 사업도 지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광역시·도급에 해당하는 북한의 시·도 체육위원회는 체육에 대한 당의 정책과 정부의 결정 및 지시사항을 이행하면서 군중교양사업을 전개하며 노동자들과 청소년들 사이에서 체육 대중화를 위한 사업을 조직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시·도내 각종 군중체육행사를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이에 대한 예

산 편성 및 종목별 체육분과를 조직하여 동 조직내에 체육열성자들을 영입하여 선수양성과 체육기술을 높이기 위한 지도사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반면 북한의 시·군 과외체육학교는 시·군 인민위원회의 직속 기관으로서, 해당 시·군 인민위원회와 상급기관인 시·도 체육위원회의 지도를 받으면서 해당지역 내에서 체육행사를 진행하며, 체육기술의 발전을 위한 강습회, 경험교환회 등을 조직하고 실행한다.

정부조직 이외에 기타 체육조직으로는 일찍부터 체육과학이 강조되면서 창립된 체육과학연구소와 중앙체육의료소 등이 있다. 북한은 1959년 2월 27일 내각결정 제15호 ‘체육사업을 발전시키며 스포츠 기술수준을 제고할 데 대하여’를 채택하여 체육의 과학화에 대한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같은 해 6월말까지 체육과학연구소의 설립을 결정했고 이를 의료사업과 연계하도록 했다. 이러한 결정에 의해 1959년 체육과학연구소와 중앙체육의료소가 설치되었다.

체육과학연구소에서는 종목별 연구소를 두고 과학적 훈련기법과 기술개발에 힘쓰는 외에 학교·대중체육의 과학적 발전과 체육교육을 위한 각종 교재 개발도 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세계 체육의 발전상을 보여주는 과학영화를 제작하여 각 선수단은 물론이고 각급 교육기관과 학교에서 효과적으로 이용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소는 김정일의 강력한 지원으로 큰 발전을 보았는데, 예컨대 개원 당시 17명의 전문 연구진이 1990년대에는 체육역학, 체육생화학, 운동기능실험, 체육생리 등 4개 분야에 약 3백여 명으로 증원되었다. 이들은 1989년까지 3천여건의 연구논문, 참고자료와 1백여 권의 각종 도서를 집필하는 등 많은 역할을 했다.



체육의료소는 1959년 3월 창립되어 1983년 3월에 세워진 체육위생연구소와 통합했다. 체육의료소는 북한내에서 가장 우수한 의료인재들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이곳에서는 양의학과 한의학을 접목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체육조직들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체육법을 제정하였는데, 북한의 체육관련법은 1997년 3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85호로 채택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체육법이 유일하다. 동법은 1998년 12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51호로 수정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는데, 총6장 54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체육법의 기본' 편으로 제1조부터 제9조까지, 제2장은 '체육의 대중화, 생활화' 편으로 제10조부터 제21조까지 구성되어 있다. 제3장은 '체육기술' 편으로 제22조부터 제30조까지, 제4장은 '체육과학' 편으로 제31조부터 제39조까지, 제5장은 '체육의 물질적 보장' 편으로 제40조부터 제47조까지, 제6장은 '체육사업에 대한 지도 통제' 편으로 제48조부터 제54조까지 구성되어 있다.

## 2. 체육시설

해방 당시 북한에는 평양 기림 야구장을 개축한 평양 공설운동장을 비롯하여 개성, 함흥, 신의주 등 비교적 규모가 큰 도시에 공설운동장이 있었지만 그 시설 규모는 매우 작은 수준이었다. 따라서 당시 국내에 보급되었던 경기를 개최하기 위한 대부분의 종목별 대회는 인근 학교의 운동장 또는 강당 등을 이용하거나 자연 상태

환경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고, 주로 서울에 있는 경성 운동장(동대문 운동장)을 이용하였다. 경성 운동장은 1926년 3월에 건립된 당시로서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종합 운동장이었다.

소련 군정이 실시되면서 북한은 체육진흥시책의 일환으로 각종 체육시설 건설에 주력하기 시작하였다. 해방후 북한에는 1947년에 3,902개의 운동장과 20여개의 체육관이 시설되어 있었으나 당시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체육시설이 비교적 규모가 큰 도시의 공설운동장 몇 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학교 운동장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숫자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

실제로 북한은 1960년 말 현재 체육시설을 밝히면서 현대적 규모를 갖춘 모란봉 경기장을 비롯하여 71개의 경기장과 4,233개의 운동장, 8개의 체육관, 183개의 체육실, 그리고 1,377개의 대·소수영장이 있다고 발표함으로써 숫자도 줄어들고 시설 규모 또한 빈약한 수준임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있다.

북한의 체육시설은 한국전쟁으로 말미암아 대부분 파괴되어 휴전 직후에는 체육시설이라고 할 만한 수준의 시설은 거의 전무한 상태였다. 북한이 다시 체육시설의 재건에 힘쓴 것은 모란봉 경기장의 복구작업이 최초였다.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의 노력 덕분에 복구된 모란봉경기장은 수용 능력 5만 명의 규모로 완공된 북한 최초의 대규모 경기시설이었다.

이후 북한은 혜산, 신의주, 함흥, 청진, 해주, 개성 등 도 소재지에 1개씩 수용 능력 2~3만 명 규모의 공설운동장 건설을 서둘렀고, 1957년에는 신의주경기장과 수영장(5,000명 수용 능력), 송도원수영장, 혜산체육관, 1958년에는 혜산진종합경기장, 2·8실내체육관, 1960년에는 동평양경기장(수용 능력 4만 명), 1962년에는 삼

지연스키장(총연장 54km), 아동궁전체육관 등을 잇달아 준공했으나 1970년대 이전까지 북한의 체육시설은 각 도에 1개씩 있는 공설운동장과 시 단위에 1개씩 설치되어 있는 과외체육학교 회관이 대부분이었다.

1970년 이후 북한은 각종 국제경기대회 유치에 대비하고 국력 신장을 과시하기 위하여 체육시설 확장에 주력하였다. 그 대표적인 건물이 평양시 모란봉구역에 위치한 2만명 수용 능력의 평양체육관이다. 이 체육관은 4층 건물로서 1972년에 착공, 다음 해인 1973년 4월 8일 완공하였으며, 탁구, 농구, 배구 등 구기 종목과 레슬링, 유도 등 15개 종목의 경기를 동시에 개최할 수 있는 현대식 설계에 의해 건설된 것이다.

북한은 1979년 4월 제35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를 이 체육관에서 개최하면서부터 각종 국제경기대회 때마다 이 장소를 사용하였는데, 때로는 체육과 관계없는 군중집회 장소로도 활용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평양 학생소년궁전 내에 체육관을, 기관차 체육선수단의 전용 체육관인 기관차체육관을, 또 군전용 사격장인 인민군사격장을 1973년에 각각 완공하였으며, 이어 1974년 4월에는 남포에 수용능력 3만명 규모의 주경기장을 비롯하여 수영장, 정구장, 실내체육관 등이 있는 남포체육촌을 완공하여 국가대표선수들의 전용 체육시설로 활용하고 있다.

1980년 4월에는 한국이 제10회 아시아경기대회의 서울 유치를 단독 신청하게 되자 이를 방해하기 위하여 신청 마감기간(10월 15일)이 지난 1980년 11월에 동 대회를 북한이 유치하겠다고 신청함과 동시에 대회개최에 대비하여 권투, 핸드볼, 펜싱, 역도, 정구, 배드민턴, 배구, 수영 등 총 8개 종목의 전용 실내체육관 건설 계획을

밝히기도 하였다.

그러나 86아시안게임 후보자 조사단의 남북한 순방 결과, 북한의 체육시설이 한국에 비해 훨씬 뒤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과의 교통편(비행기)이 일시에 많은 인원을 수송할 능력이 없고 또 숙박시설도 충분하지 못하다는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결국 북한은 그들의 열세를 스스로 인정하고 동 대회 유치를 위한 최종 표 대결 직전에 포기하고 말았다.

그 후 북한은 각종 체육시설 건설에 주력하기 시작하였는데, 먼저 1981년 10월 김일성의 70회(1982년) 생일에 맞춰 북한 최대의 옥외 경기장인 모란봉경기장을, 그 2배 규모인 수용능력 10만명 규모로 확장하는 대규모 공사에 착공, 이듬 해 4월 10일 완공하면서 그 명칭을 김일성경기장으로 개칭하였다.

이보다 앞서 북한은 1980년 3월 21일 창광원수영장을, 1981년 12월 6일 평양빙상관을 각각 건설하였다. 창광원은 수영장, 물놀이장, 목욕탕으로 구성된 일종의 종합 편의시설로서 4층 건물로 되어 있는데, 수영장의 수용인원은 2천명, 그리고 수영, 수구, 다이빙 등 국제 경기가 가능하도록 꾸며져 있다.

평양빙상관은 1981년 12월 6일 완공되어 1982년 4월 7일 개장한 북한 최대의 실내 아이스링크시설로서 내부의 관람석은 3층으로 꾸며진 수용능력 6천명의 규모이다. 스케이팅, 아이스하키, 피겨경기 등이 자주 열리고 있으나 때에 따라서는 링크 위에 고무판을 깔고 배구, 농구, 정구, 탁구 등의 경기장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1985년 7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12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서 차기대회 장소로 평양이 결정된 후, 북한은 이에 대비하는 각종 체육시설의 건설에 집중하였다. 먼저 북한은 대규모의 체육행사를 유

치하는데 필요한 시설 확보를 위해 1986년 2월 평양시 만경대구역 안골에 종합체육촌 건설을 계획하고 1988년초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 당초 계획보다 다소 늦어진 1988년 9월 3일에 안골체육촌을 완공하였다.

이 체육촌은 총 부지 면적 175만㎡에 연 건축면적 26만 7천㎡이며, 종합경기장으로 축구와 육상경기를 할 수 있는 안골경기장(서산축구경기장)을 비롯하여 각종 전용체육관을 비롯한 실내체육관과 피로회복관, 체육인 식당 등도 순차적으로 세워졌다. 종합경기장인 안골경기장은 2만5천명의 관람석을 갖추고 있으며, 전용체육관 및 실내체육관으로는 핸드볼장(2,300석), 수영장(3,300석), 탁구장(4,000 석), 농구장(2,000석), 배드민턴장(3,000석), 역도장(2,000석), 배구장(2,000석), 경경기관(4,000석), 중경기관(2,000석)등이 있다.

이 체육촌에서는 1989년 7월 예정대로 제13차 평양세계청년학생축전이 개최되었다. 북한은 이에 앞서 88서울올림픽 공동개최 주장을 뒷받침하는 시설로도 이 체육촌을 선정했었다.

이밖에 북한은 평양축전과 관련하여 1989년 4월에 수용능력 3만명 규모의 양각도 축구경기장을, 5월 1일에는 수용능력이 15만명의 5·1경기장을, 그리고 6월 23일에는 김일성종합대학 실내체육관(수용 능력 2,000명)을 각각 건설하였다.

그 뒤 북한은 1990년대에 들어와 그 동안 자본주의적 스포츠라고 하여 외면해 왔던 야구, 볼링 등을 위한 체육시설의 건설에 주력하기 시작하였으며, 1991년에는 북한 최초의 대규모 종합 레저스포츠 시설인 낙원관과 야구전용구장 건설에 각각 착공하였다.

평양야구장은 3,500석의 관람석을 갖추고 있는 북한 최초의 야구 전용구장으로서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대회에 야구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됨에 따라 이 종목의 경기 기술개발과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건설되었다. 그리고 낙원관은 볼링장, 실내외 풀장, 수상스키장, 전자오락실 및 각종 문화, 체육, 오락시설이 들어 있는 종합 레저스포츠 시설로서, 1991년 6월7일 40개의 레인과 500석의 좌석을 가진 볼링장부터 착공하여 1994년 2월 14일 개장하였다. 1991년 8월에는 자강도 강계시에 롤러 스케이트장을 건설 한데 이어 1992년 6월에는 평양 능라도의 5·1경기장 옆에 현대적인 롤러 스케이트장을 건설했고, 1992년 9월에는 태권도 전용 체육관인 태권도전당을 평양시 안골 체육촌 내에 완공하였다. 특히 태권도전당은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수용 능력 2,500석의 기본경기관을 비롯하여 각종 훈련장과 부대시설이 들어가 있다. 또 1991년 7월에는 평양 능라도 남쪽에 반월도 수영장을 건설하였다. 이밖에 북한은 평남 평성에 5만명 수용능력의 대규모 종합경기장을, 평양 만경대구역에 속도빙상관을, 그리고 평양 능라도에 축구훈련장, 롤러스케이트장, 롤러하키장, 필드하키장, 송구장, 야구장, 수영장 등을 5개 휴식구 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건설하기도 하였다.

평양골프장은 1987년 4월 김일성의 75회 생일을 기념하여 재일 조총련과 합작으로 착공 1년만의 1988년 9월 23일 개장한 골프장으로서 남포시 용강군과 대안구역 사이의 태성호 북쪽 기슭에 위치하고 있다. 이 골프장은 면적이 120만㎡, 18홀 크기이고, 전장 7km이다. 북한은 평양골프장 외에 1990년 8월 평양시에 실내 골프 연습장을 설치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북한이 국제 수준의 체육시설의 건설에 역점을 두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각종 스포츠가 국제화, 대형화되어 가는 경향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겠으나, 체육 수준이 국력의 수준을 반영한다고 하는 입장에서 볼 때 국제대회 유치와 보다 심화될 국제교류

를 의식한 조치라고도 할 수 있다.

지방 체육시설로는 1974년 4월 남포에 체육촌이 완공되었고, 특히 1988년에는 자본주의 스포츠로 인식되었던 골프장이 역시 남포에 세워졌다. 특색 있는 체육시설로는 함경남도 신포시의 해양체육회관이 있다. 1984년 4월에 개관한 해주경기장은 3만2천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종합경기장이며, 1987년 4월에 준공된 사리원경기장은 4만여 명을 수용할 수 있다. 해주경기장과 사리원경기장은 모두 집단체조와 관련된 시설들을 갖추고 있다. 체육관으로는 국제경기도 진행할 수 있는 황해북도의 평산군민체육관이 1992년 10월에 준공되었다. 1999년 11월에는 평안남도 개천에 야외경기장이 딸린 체육관이 세워졌다.

### 3. 체육대회

#### 가. 학생대회

북한의 체육대회는 연간 30여개 대회가 개최되며 크게 학생체육대회와 일반체육대회로 구분한다. 학생체육대회는 소학교에서부터 중학교, 고등체육전문학교, 대학교 학생선수들이 참가하여 학교 체육의 성과를 평가하고 학교간, 각 지역 과외체육학교간의 경쟁심을 유도해 경기력을 향상시키며 우수선수를 조기에 발굴하여 유망선수로 육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한민족 전통 민속놀이인 씨름, 그네, 궁술 등을 스포츠로 변형하여 민족경기 종목을 활성화를 위해 민족체육 경기대회도 개최하고 있다.

북한에서 실시되고 있는 체육대회는 주로 종합체육대회 성격 형식으로 개최된다. 대표적인 종합체육대회로서는 전 인민이 참가할 수 있는 공화국 선수권대회와 인민체육대회 그리고 만경대상 체육경기대회, 백두산상 체육경기대회, 오산덕상 체육경기대회 등이 있다.

초등 및 유자녀학원 학생체육대회는 소년체육대회로서 체육의 대중화 정책을 실현하고 우수선수 및 유망선수 발굴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유자녀 학원 남녀별 초등부 학생이 참가하며 체조, 예술체조, 육상, 축구, 농구, 배구, 탁구, 씨름, 수영 등 9개 종목이 있다. 장자산상 체육경기대회는 조선소년단 창립 기념체육대회로서 각 도에서 선발된 선수만 참가할 수 있으며 육상, 축구, 탁구, 체조, 예술체조 등 기본종목과 인기종목 등을 통해 학교체육 종목별 전문화 방침 이행 여부를 확인하며, 체육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지덕체를 갖춘 혁명인재로 육성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전국 청소년체육학교 체육대회는 각 도, 시, 군(지역)에 위치한 청소년 과외체육학교 선수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학생들의 과외체육활동을 강화하고 우수선수를 육성하고자 1964년에 창설되어 매년 전 지역에서 개최되고 있다. 전국의 과외체육학교가 참가하여 예선 경기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각 과외체육학교간 경쟁이 치열하며 육상, 농구, 배구 등 약 20여 종목을 실시하고 있어 청소년 학생 체육대회로는 가장 규모가 크고 수준 높은 대회라 할 수 있다.

선수등급에 따른 각급 체육선수단 대회가 1959년부터 본격적으로 개최되어 축구, 농구, 배구 등 구기종목과 육상, 역도 등 종목별 경기대회가 활발히 개최되고 있다. 북한의 학생체육대회는 우수선수를 조기 발굴 육성하고, 학교체육의 정상화를 도모하는 목적을



두고 있으면서 세계청소년학생축전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선수를 선발하는 선발전 성격도 갖고 있다. 북한은 우수한 선수를 조기에 발굴하여 육성하기 위해 학교체육을 강조하고 있으며 학교체육을 관장하고 지도하는 시(구역)·군 과외체육학교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전국 과외체육학교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기록한 선수들은 해당 지역의 체육선수단에 입단하여 각종 대회에 출전하며 종목별 전문 훈련을 받으며 대표 선수로 발탁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기도 한다.

## 나. 일반대회

북한에서의 일반체육대회는 한국전쟁 이전부터 주로 각종 기념 일에 즈음해서 개최되었다. 예컨대, 해방 이후 진행된 종합체육대회로는 1946년 10월 진행된 8·15해방 1돌 경축 북조선종합체육대회, 1947년 이후 1957년까지 8·15때에 실시된 북조선인민체육축전, 1948년 10월 31일 공화국창건 기념 조선전국종합체육대회, 1949년부터 시작된 체육절 기념 전국종합체육대회 등이 있다. 그 뒤 한국전쟁 이후부터 1960년대 전반까지 개최된 체육대회는 8·15해방 기념 전국체육축전, 체육절 기념 전국체육대회, 공화국창건 경축 전국체육축전 등이 있었다. 1960년대부터는 본격적으로 개최되었는데, 체육절 기념대회와 더불어 만경대상대회, 백두산상대회, 공화국선수권대회, 인민체육대회, 민족경기대회 등이 있다.

체육절 기념대회는 매년 10월 둘째 일요일인 체육절을 전후하여 전국선수권대회 등 다양한 대회가 열린다. 체육절 기념 전국선수권대회가 최초로 개최된 것은 1949년 10월 30일이었으며 장소는 모란봉경기장이었다. 초창기에는 이 대회 명칭이 ‘협회 연맹전’으

로 불리기도 했다. 그러나 이 대회는 공화국선수권대회, 만경대상대회, 백두산상대회 등 다른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가 활성화되면서 체육절 기념 전국선수권대회는 실제로 열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다만 이 기간에 개최된 다른 전국대회를 ‘체육절 기념대회’라고 통칭하고 있다.

만경대상대회는 김일성의 생일을 기념하여 1969년 4월 1일 처음 개최된 대회이다. 평양시를 비롯한 전국의 시·도 대표선수단이 모두 참가하며, 1977년 대회부터는 재일 조총련선수단이 참가했다. 경기종목은 육상, 체조, 수영, 각종 구기 등 일반적인 체육종목과 국방체육이 포함된다. 제1회 대회에서는 ‘만경대컵’이라 했고 김일성의 60회 생일부터 매 10년 주기마다 ‘전국체육축전’이란 명칭으로 진행되고 있다.

백두산상체육대회는 김정일의 생일을 기념하여 1977년부터 개최되는 대회이다. 대회 명칭은 김정일이 혁명의 성지인 백두산에서 태어났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1986년 대회전까지는 보통 개최식장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만세’ 등의 구호가 걸려 있기도 했고, ‘김일성장군의 노래’의 합창으로 개막식이 시작된다.

공화국선수권대회는 1972년 10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종목별 체육선수권대회’라는 명칭으로 시작되었다. 그 시초는 1947년 10월 청진과 평양에서 열렸다. 초창기에 공화국선수권대회의 명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체육종목별 선수권대회’, ‘체육종목별 공화국선수권대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선수권대회’ 등이 있었는데, 1980년대 중반부터 공화국선수권대회로 일원화되었다. 대회시기마다 체육절 기념(72, 79년), 조선노동당 창건 기념

(75, 76, 85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몇돌 기념(77, 80~82년)이라 했듯이 명칭부여에 일관성이 없다.

인민체육대회는 우리의 전국체전과 비교되는 북한 최대 규모의 종합체육경기대회이다. 1960년 '8·15해방 15주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체육대회'라는 명칭으로 시작되었다. 1963년 2차 대회 이후 5년마다 개최되며, 1973년 4차 대회 이후에는 현재의 명칭으로 개최되었다. 경기종목은 일반체육종목이외에 민족경기 및 국방체육경기가 포함되어 있다. 규모도 점차 커져서 5차 대회인 1978년에는 4천여명이던 것이 1983년 대회에서는 35개 종목 1만 4천여명이 참가했고, 1988년에는 58개 종목에 조총련선수단을 포함하여 1만여명, 1993년에는 40여 종목에 1만 5천여명이 참가했다.

민족경기대회는 1956년부터 민족체육을 널리 장려하고 발전시킨다는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특히 민족경기는 체육의 교조주의와 사대주의를 극복하고 주체를 확립하며 인민들의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높여준다고 하여 중요시하고 있다. 경기종목 중 활쏘기는 1955년 8·15 해방 10돌 기념 전국체육축전에서 첫 경기종목으로 포함되어 있었고, 전국궁술모범경기대회가 개최되기도 했다. 1956년 6월 첫 대회가 열렸는데, 경기종목은 씨름, 그네, 궁술(각궁과 목궁), 널뛰기 등이었다. 하지만 개최시기는 일정하지 않다.





## 제4장 북한의 국제체육교류



주제가 있는 통일문제 강좌 21

## 제4장 북한의 국제체육교류

1999년의 제7차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마라톤경기에서 정성옥이 북한 선수로는 최초로 1위를 차지했다. 정성옥은 이 대회에서의 우승으로 인해 인민의 영웅으로 떠올랐으며 인민대외원에 선출되기도 하였다. 정성옥의 이러한 우승에 대해 북한은 김정일이 1986년 체육인과의 담화에서 제시한 체육기술의 발전에 관한 지시에서 비롯된 성과로 여겼다.

김정일은 이 담화에서 체육기술의 기본적 발전방향을 우선적으로 인민의 기호와 체질에 맞고 전망이 밝은 종목들의 기술을 발전시키는데 두어야 한다고 하면서 마라톤을 비롯한 육상종목과 축구, 탁구, 사격, 권투, 양궁, 체조, 역도 등을 적절한 종목으로 제시했었다.

김정일의 1986년 담화를 보면 국제교류의 의지가 강하게 피력되어 있다. 각종 국제경기대회에의 참가를 독려하는 한편, 국제무대에서의 성적에도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그에 따라 북한은 자주 국제대회에 참가했고 특히 전통적으로 북한이 강세 종목이었던 마라톤, 체조, 역도, 사격, 탁구와 레슬링, 유도 등에서는 일정한 성

과를 달성하기도 하였다. 이들 종목 중에서도 특히 사격은 경기의 성격상 한국·미국과의 대결의식을 강조할 수 있는 적절한 종목이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국제체육교류는 국제대회에 참가하거나 개최하여 타국과의 교류를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실제로 북한은 경제적인 이유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북한내에서 국제적 규모의 공식적 종합대회를 실시한 경우가 거의 없으며, 개최하는 국제대회의 규모도 러시아를 비롯한 공산국가나 제3세계국가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북한의 국제체육교류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국제대회 참가

### 가. 올림픽대회

우리나라는 지난 1947년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에서 열린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 결정에 따라 한반도의 유일한 IOC회원국 자격을 획득했다. 따라서 한 국가에 하나의 국가올림픽위원회(NOC)를 인정한다는 IOC의 원칙에 따라 북한의 IOC가입은 번번히 무산되었고 북한의 올림픽 참가 역시 이루어질 수 없었다. 북한의 IOC가입은 1957년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열린 IOC총회에서 잠정적으로 인정되었다. 로마올림픽대회에 남북한이 단일팀을 구성하여 참가하는 조건으로 북한의 NOC를 인정하되, 단일팀이 불발되었을 경우 북한의 올림픽 참가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이었다.

1963년 10월 독일 바덴바덴에서 열린 IOC총회는 북한의 NOC

자격을 승인하여 북한의 IOC회원 자격이 정식으로 인정되었다. 그리하여 북한은 1964년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에서 열린 제9회 동계올림픽대회부터 독자적으로 참가할 수 있었으며, 북한이 본격적으로 올림픽대회를 비롯한 국제대회에 참가하기 시작한 것은 1969년 제68차 IOC총회에서 이후의 모든 올림픽경기대회에 북한의 정식국호를 'DPRK'로 결정하면서부터였다.

### 1) 하계올림픽대회

북한이 하계올림픽대회에 처음으로 참가한 것은 1972년 독일 뮌헨대회였다. 21개의 경기종목 중 육상, 역도, 여자배구, 권투, 사격, 체조, 양궁, 조정, 유도 등 10개 종목에 65명의 선수가 출전했다. 이 대회에서 북한은 금메달 1개(사격), 은메달 1개(권투), 동메달 3개(유도·여자배구·레슬링)로 종합순위 22위를 차지했는데, 체조에서는 이송섭이 철봉에서 '두바퀴 허공 돌아 360도 방향 바꾸기' 동작을 해내 국제체조연맹이 이 기술을 '이송섭 내리기'로 등록하기도 했다.

1976년 캐나다 몬트리올대회에는 축구, 육상, 사격, 양궁, 권투, 역도, 유도, 레슬링 등 8개 종목에 선수 61명, 임원 29명 등 90명의 선수단이 참가했다. 이 대회에서는 권투에서 금·은메달 각 1개씩 얻는데 그쳤다.

1980년 소련의 모스크바대회에는 역도, 레슬링, 체조, 마라톤, 유도, 양궁, 사격, 권투 등 8개 종목에 걸쳐 선수 57명, 임원 44명 등 101명의 선수단이 참가했다. 하지만 금메달을 획득하지 못했고 레슬링과 역도에서 은메달 2개, 역도와 권투에서 동메달 2개만을 획득했다.



1984년 미국 로스앤젤레스대회와 1988년 서울대회에 불참한 북한은 1992년 스페인의 바르셀로나대회에 레슬링, 역도, 권투, 체조, 탁구, 유도, 육상, 사격 등 11개 종목에 사상 최대규모인 선수 65명, 임원 43명으로 구성된 선수단을 파견했다. 이 대회에서 북한은 금메달 4개(레슬링, 체조, 복싱), 동메달 5개(레슬링, 역도, 복싱, 탁구)를 얻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다.

1996년 미국 애틀랜타 대회에는 9개 종목에 24명의 선수단을 파견했는데, 이렇듯 적은 규모로 파견한 것은 김일성의 사망에 따른 이른바 애도기간임을 감안한 조치였다. 이 대회에서 북한은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 등 출전선수 규모에 비해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2000년 호주의 시드니대회에는 31명의 선수를 파견했으나 은메달 1개, 동메달 3개만을 획득하는 등 비교적 저조한 성적을 나타냈다. 특히 확실한 금메달 후보였던 여자역도의 세계신기록 보유자 이성희가 은메달에 그쳤다.

2004년 그리스 아테네대회에서는 9개 종목에 75명의 선수단을 파견했으며, 은메달 4, 동메달 1개를 획득했다.

## 2) 동계올림픽대회

북한의 첫 동계올림픽대회 참가는 1964년 오스트리아의 인스브루크대회였다. 이 대회에 선수 17명, 임원 22명 등 39명의 선수단이 참가하여 한필화가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300m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이후 1972년의 삿포르대회, 1984년의 사라예보대회, 1988년의 캘거리대회에 참가했으나 메달 획득에는 실패했다. 이 가운데 1972의 삿포르대회에서는 한필화가 남매 상봉으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어 남북 분단이라는 민족적 비극을 실감케 했다.

1980년의 레이크플레이드대회는 사상 최초로 미국에서 개최된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으나 북한은 선수단을 파견하지 않고 대표단만 보냈다. 1992년의 프랑스 알베르대회에서는 쇼트랙 500m에서 황옥실이 동메달을 획득했다. 2002년 미국 솔트레이크대회는 개최 전 발생한 미국과의 정치적 갈등으로 불참하였으며 2006년에는 토리노 동계올림픽에 참여하여 남북이 공동입장을 하였으나 메달획득에는 실패하였다.

## 나. 아시아경기대회

### 1) 하계아시아대회

1972년 뮌헨올림픽대회 이후 북한은 아시아경기연맹(AGF)에도 가입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1974년 제7회 아시안게임 개최국인 이란과의 접촉을 강화하여 1974년 3월 테헤란 아시아경기연맹 대표자회의에서 북한의 아시아경기연맹 가입이 승인되었다.

북한은 1974년 8월 30일 아시아역도연맹 가입을 시작으로 그 해 9월 한달 동안에 무려 8개 종목의 산하 경기연맹에 가입하고 1974년 9월 테헤란 아시아경기대회에 처음 참가를 시작으로 1986년 서울아시아경기대회와 1994년 대회를 제외한 전대회에 참가해 왔다.

1974년 테헤란대회에는 14개 종목에 2백32명의 대규모 선수단을 파견하여 금메달 15개, 은메달 14개, 동메달 17개로 종합순위에서 한국에 이어 5위를 차지했다. 이 대회기간 중 북한은 AGF 총회에서 신입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위원국에 피선되는 등 스포츠외교에 매우 적극적이었다.

1978년 방콕대회에는 13개 종목에 2백24명의 선수단을 파견하여 금 15개, 은 13개, 동 15개로 한국에 이은 종합 4위를 차지했다. 1982년 인도 뉴델리대회에서는 금 17개, 은 19개, 동 20개로 한국의 뒤를 이었다. 1986년 서울대회를 정치적 이유로 불참했던 북한은 1990년 북경대회에서 금 12개, 은 31개, 동 39개로 종합성적 4위를 차지했다. 특히 이 대회에서는 남북 공동응원을 펼쳐 남북화해 분위기를 연출했다. 1994년 히로시마대회는 김일성에 대한 애도기간임을 이유로 불참했으나 1998년 방콕대회에는 3백14명이라는 대규모 선수단을 파견했다. 이 대회에서는 20여 개의 종목에 출전하여 금 7개, 은 14개, 동 12개를 확보하여 종합 8위에 그쳤다.

북한이 참가한 역대 아시아경기대회 중 가장 의미 있는 대회는 2002년 9월부터 진행된 부산대회였다. 남한이 개최하는 국제경기대회에 처음으로 참가했다는 단순한 의미뿐만 아니라 작게는 남북체육교류의 새 장을 열었다는 점에서, 크게는 남과 북이 민족공동체로서 하나됨을 확인한 대회라는 의미가 더욱 큰 대회였다.

사실 남과 북의 스포츠교류사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받아들여지는 1991년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단일팀 구성이나 세계청소년축구대회 단일팀 출전,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의 동시입장 등은 외국에서 이뤄진 일이며, 1990년 남북통일축구, 1999년 통일농구대회는 단일종목의 이벤트 성향이 강한 교류였다. 이에 비해 북한의 부산대회 참가는 그 자체로 기존 제한적 공간에서 소수 인원으로 이루어지던 남북체육교류의 질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인공기를 둘러싼 논쟁에도 불구하고 남과 북은 경기장은 물론이고 부산 시내 곳곳에서 공동응원과 각종 행사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동포애를 느낌으로써 민족동질성을 확인했다.

2006년 도하대회에서는 북한이 금 6, 은 9, 동 16개로 16위를

달성했다.

## 2) 동계아시아대회

종목 특성상, 동계스포츠는 아시아에서 크게 활성화되지 못했다. 따라서 동계아시아경기대회는 1986년에 와서야 일본에서 처음 개최되었다. 이 대회에서 북한은 전통적으로 강세 종목이었던 스피드스케이팅에서도 1위를 차지하지 못했다. 특히 여자 1000m경기에서는 0.4초 차이로 한춘옥이 1위를 놓쳤다. 하지만 피겨 듀엣부문에서 남혜영(15세)과 김혁(11세)이 예상외로 1위를 차지했는데,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기량을 보여주었다.

북한은 첫 동계아시아경기대회에서 금 1개, 은 2개, 동 5개를 얻었으나 1990년 제2회 대회에서는 빙상에서만 은 1개, 동 1개를 획득하는 데 그쳤다. 제3회 대회는 북한에서 유치했으나 대회를 반납하여 무산되었다. 이후 대회는 1999년 강원도에서 개최했으나 북한은 참가하지 않았다. 2003년 일본의 아오모리에서 개최된 동계대회에서는 은메달과 동메달을 각각 한 개씩 획득하였으며, 2007년 중국 창춘대회에 북한은 선수 임원 99명을 파견했으나 단 한 개의 메달도 획득하지 못하고 말았다.

## 다. 유니버시아드 경기대회

북한의 유니버시아드대회 참가는 1970년 핀란드 로비니아미 동계대회가 처음이다. 이 대회에는 19명의 선수단을 파견했으나 한필화가 스피드스케이팅에서 은메달과 동메달 하나씩을 획득하는데 그쳤다. 이후 유니버시아드대회는 한 동안 참가하지 않았다. 1983년 캐나다 레드먼튼 하계대회에 3명의 대표만이 참가했을 뿐이다.

북한이 다시 유니버시아드대회에 참가한 것은 1985년 일본 고베 하계대회였다. 이 대회에서는 1백39명의 선수단을 파견하여 금메달 3개, 은메달 3개를 얻어 종합성적 12위의 한국보다 앞선 9위의 성적을 차지했다.

1987년 유고 자그레브 하계대회에는 축구, 육상, 농구, 배구, 체조, 카누, 조정 등 7개 종목에 63명의 선수단을 파견했다. 이 대회에서는 축구와 여자체조에서 동메달 2개를 얻는 데 그쳤다. 1989년 독일 뒤스부르크 하계대회에 불참한 북한은 1991년 영국 셰필드 하계대회에 92명의 선수단으로 체조, 다이빙, 축구, 여자농구, 육상 등 5개 종목에 참가하여 금 11개, 은 3개, 동 5개의 성적을 거두고 종합순위 5위에 올랐다.

동계대회에는 1970년 로미니에미대회 참가 이후 1987년 체코 스트르브스키 플레스대회에 참가했다. 이 대회에서는 북한은 아이스하키, 스키, 피겨스케이팅 등 3개 종목에 32명의 선수를 파견했으나 메달을 획득하지는 못했다. 1989년 불가리아 소피아대회에는 피겨스케이팅, 스키 등 2개 종목에 45명의 선수단을 파견하여 은 1개, 동 1개를 획득했다. 1991년 일본 삿포로대회에는 아이스하키, 피겨, 스키 등 5개 종목에 82명의 선수단이 참가하여 금 4개, 은 1개, 동 3개를 얻어 종합성적 4위에 올랐다. 1993년 폴란드 자코뎡 동계대회에는 바이애슬론, 크로스컨트리, 쇼트랙 등 3개 종목에 24명의 선수단을 파견하여 은 2개, 동 3개를 획득했다.

2003년 대구대회에는 여자축구와 유도, 체조 등에서 정상에 올라 금 3, 은 7, 동메달 3개로 종합 9위를 달성했으나, 2005년 터키 대회에서는 금 1, 은 3, 동 2개로 24위, 2007년 방콕대회에서는 금 2, 은 1, 동 4개로 21위에 머물렀다.

## 라. 세계선수권대회

북한은 1950년 중반에 종목별 국제경기연맹에 가입했으나, 국제대회 참가는 1960년대까지는 주로 사회주의권에서 개최되는 대회에 집중되었다. 당시 북한은 소련을 비롯한 공산권 국가 위주로 외교관계가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세계선수권대회에 처음 참가한 것은 1956년 8월 30일부터 9월 12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던 세계배구선수권대회였다. 이 대회에서 남자팀은 24개 참가국 가운데 18위, 여자팀은 17개 참가국 가운데 8위를 차지했다. 특히 여자팀은 미국팀을 3시간이 넘는 접전 끝에 승리하여 세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그 후 1963년 루마니아 국제탁구선수권대회에 참가하여 남자단체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고, 1969년의 쿠바 국제여자배구선수권대회에서도 1위를 했다. 같은 해 열린 모스크바 국제체조경기대회에서는 금메달 6개, 은메달 1개, 동메달 5개를 얻는 성과를 거두었다.

동계종목 중에서는 스피드스케이팅에서 강세를 보여 1965년 핀란드의 세계여자스피드스케이팅선수권대회에서 종합 2위를, 1966년 노르웨이대회에서는 김송순이 1500m 1위, 1000m 2위, 3000m 3위를 바탕으로 종합성적에서 2위를 차지했다. 이 성적은 여자스피드스케이팅 종목에서 아시아 선수로는 가장 좋은 성적을 올린 것이었다. 1970년 베를린의 세계스피드스케이팅선수권대회에서는 금메달 4개, 은메달 2개, 동메달 3개의 성적을 거두었다.

북한이 서구에서 개최된 세계선수권대회에 본격적으로 참가한 것은 1970년대부터였다. 1972년 민헨의 세계역도선수권대회에서 박동근이 용상 52kg급에서 1위를 차지했고, 1973년 프랑스 세계양

궁선수권대회에서는 김향민이 30m 복식경기에서 2위, 장순영이 3위를 차지했다. 이어 1975년 스위스 세계양궁선수권대회에서는 여자 단체전 2위, 그리고 한순희가 60m 복식경기에서 2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은메달 2개, 동메달 3개를 획득하는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1975년 제33회 인도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서는 여자단식에서 박영순이 1위를 차지했는데, 박영순은 1977년 영국에서 열린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개인단식과 복식에서 1위를 하는 등 모두 금메달 2개, 동메달 1개의 성적을 올렸다. 레슬링에서는 1983년 소련 기예프에서 열린 제22회 레슬링선수권대회의 48kg급 자유형에서 1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헝가리의 부다페스트 레슬링선수권대회에서도 우승을 차지했다.

특히 북한은 체조선수권대회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었다. 이미 1972년 뮌헨 올림픽대회 철봉종목에서 이송섭이 보여준 기술이 ‘이송섭 내리기’로 국제체조연맹에 등록된 것을 비롯하여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뛰어난 기량으로 국제체조연맹에 자신의 이름을 딴 기술이 등록된 선수들이 많다. 1981년 모스크바 세계체조선수권대회에서는 이철현이 안마에서 뛰어난 기량을 선보여 국제체조연맹은 그의 기술을 ‘이철현 동작’으로 등록했으며, 여자 선수로는 김광숙이 1989년 세계선수권대회 이단평행봉에서 새로운 동작을 선보여 ‘김광숙 동작’으로 등록되었다. 김광숙은 1991년 대회에서도 10점 만점을 받기도 했다. 배길수는 1992년과 1993년, 1996년의 세계체조선수권대회 안마종목에서 모두 1위를 하여 ‘안마왕’이란 별명을 얻기도 했다. 그러나 체조종목은 1990년대 후반부터 쇠퇴하기 시작하여 1999년의 국제대회에서는 올림픽출전권을 따지도 못했을 정도였다.

요컨대, 북한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일찍부터 좋은 성적을 거둔 종목을 주로 스피드스케이팅, 역도, 레슬링, 탁구, 체조 등이었다. 이들 종목은 최근까지도 북한의 강세종목으로, 특히 역도에서는 이성희가 여자 선수로서 1999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세계신기록을 수립하기도 했다. 이들 종목 외에 최근 좋은 성적을 올린 종목은 육상과 유도이다. 앞서 이야기한대로 정성욱이 1999년 제7차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마라톤에서 1위는 차지하여 북한은 자긍심과 자존심을 살려준 획기적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유도에서는 계순희가 1996년 미국 애틀랜타 올림픽대회에서 일본의 간판스타 타무라 료코를 누르고 금메달을 딴 뒤 1997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2위, 2000년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1위에 이어 2003년, 2005년, 2007년에도 각각 1위에 오르는 등 뛰어난 기량을 선보였다.

## 2. 국제대회 개최

지금까지 북한에서 개최된 국제대회는 단일종목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공식적인 종합대회는 실시된 바가 없다. 또 개최하는 국제대회의 규모도 러시아를 비롯한 공산국가나 제3세계국가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서 북한과 이념적으로 공감하는 나라들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 최근에 와서는 사회주의 국가뿐만 아니라 중립국 또는 서방 국가들의 선수를 초청하여 친선경기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1980년대에 들어와 예술 체조(리듬체조), 마라톤, 여자배구, 탁구, 권투, 유도, 사격, 레슬링 등 종목에 대하여 국제 초청 경기대회를 창설, 연례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북한에서 개최는 주요 국제대회로는 ‘만경대상국제마라톤대회’가 가장 대표적이며 비교적 많은 나라가 참여하고 있다. ‘만경대상국제마라톤대회’는 1981년 4월 김일성의 생일 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창설된 대회로서 각국과의 스포츠 교류를 통한 친선 도모 및 육상 경기 종목의 경기력 향상을 목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1981년 제1차 대회를 시작으로 매년 개최되다가, 1993년부터 7년간 중단되었으며 2000년부터 재개되었다.

2008년 4월 16일에 열린 ‘제21차 만경대상국제마라톤대회’에는 중국, 루마니아, 노르웨이, 케냐, 탄자니아, 보츠와나, 남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가 참가하였다. 경기방식은 남부부분으로 나뉘었고, 김일성경기장을 출발해 개선문, 혁신거리, 영웅거리, 천리마거리, 낙원거리, 광복거리, 반환점인 청년영웅도로, 김일성경기장으로 끝나는 코스로 진행되었다. 창설 이래 해마다 러시아,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 중심의 6~8개국에 참가하여 왔으나 경기기록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음이 특징적이다. 2008년 대회에는 남한의 국민체육진흥공단 마라톤팀이 초청받아 참가하기도 했다.

1979년 6월 창설한 ‘국제친선예술체조경기대회’는 각국과의 예술체조를 통한 친선 도모 및 경기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 경기대회로서 연례적인 초청 경기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러시아, 중국, 몽고, 불가리아 등의 국가들이 참가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2진 선수단을 파견하여 북한이 종합 우승을 해마다 독점해 오고 있다.

1992년 2월부터 개최된 ‘백두산상 국제휘저축전(국제피겨축전, 국제피겨대회)’은 김정일의 생일(2월 16일)행사의 하나로 시작하여 매년 열리고 있다. 2000년 2월 12일부터 16일까지 개최된 ‘제9차

백두산상 국제휘겨축전'은 세계선수권대회 경기규칙에 준해 남녀 개인경기(싱글), 쌍경기(페어), 빙상무용경기(아이스댄싱) 등 4개 종목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불가리아 등지의 선수들이 참가했다. 다음해인 '제10차 백두산상 국제휘겨축전'에는 벨라루씨, 영국, 우크라이나, 중국, 체스꼬, 프랑스의 이름 있는 피겨선수들과 북한 피겨선수들이 참가하였다.

1999년 3월 20~25일 평양시 중구역 보통문동에 있는 빙상관에서 '아시아, 오세안주청소년빙상호케이선수권대회(2조)'가 개최되었다. 이 대회는 제16회 아시아·오세아니아 주니어아이스하키 선수권대회 B폴경기로 북한, 남아프리카공화국, 뉴질랜드가 각각 1, 2, 3위를 차지했고 중국 선수단은 경기도덕상컵(페어플레이상)을 받았다.

'평양국제탁구초청경기대회'는 1981년 창설되어 1992년(제12차)까지 해마다 열렸으나 그 이후 중지됐다가 1999년 '제13차 평양국제탁구초청경기대회'가 7년 만에 개최되었다. 이 대회는 1999년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평양시 만경대구역 청춘거리에 있는 탁구경기관에서 열렸으며, 주최국인 북한을 비롯하여 몽고, 이란, 인도, 일본, 중국이 참가했다. 중국과 북한선수가 각각 남녀 개인전 1위를, 여자복식, 남자복식, 혼성복식에서는 모두 북한선수들이 1위를 차지했으며, 단체경기에서는 중국(男)과 북한(女)선수들이 우승을 차지했다. 이후 2000년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5일간 '제14차 평양국제탁구초청경기대회'가 개최되었다. 창설 초기에는 러시아, 중국 등 주로 사회주의 국가들이 참가하여 왔으나, 1987년 이후부터는 비동맹권의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등이 참가하고 있다.

'평양국제권투대회'는 1981년 외국과의 스포츠 교류를 통한 친선 도모 및 경기력 향상을 목적으로 창설한 대회이다. 창설 이래 러

시아, 중국, 루마니아, 동독, 체코 등 5~6개국이 고정적으로 참가하여 왔다.

2004년 9월 15일부터 20일까지 ‘제1차 국제무도경기대회’가 개최되었다. 태권도경기관, 가라테경기관 등 북한의 체육선수촌인 평양시 청춘거리의 8개 장소에서 열렸던 국제무도대회는 경기종목은 태권도, 가라데, 우슈, 킥복싱, 씨름이며, 태권도, 우슈, 가라데, 아이끼도, 주지쯔, 바실라, 기타 개별적 나라에서 자기 나라 전통무도의 시범출연을 하였다. 이 대회에는 북한, 중국, 일본, 몽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인디아, 네팔, 튀르키예, 기르끼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로씨야, 벨가리아, 체스코, 슬로벤스꼬, 우크라이나, 프랑스, 에스파이나, 아일랜드, 몰도바, 아르헨티나, 브라질, 미국, 캐나다, 콜롬비아, 페루, 칠레, 쿠바, 그레네이더, 남아프리카,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 50여개 나라에서 600여명의 무도인들이 참가하였다.

‘평양컵국제축구대회’는 1990년 창설한 대회로서 상금제를 실시하는 것이 특이하다. 우승국에는 2만 달러, 준우승 팀에는 1만 달러, 3위에게는 5천 달러를 지급했다.

이 밖에 북한이 개최하고 있는 국제대회에는 ‘평양 국제여자배구대회’가 1981년 11월에 창설되었고, ‘백두산상 국제유도대회’는 1983년 6월에 창설되었다. ‘국제사격경기대회’는 1984년 10월에 창설되었으며, ‘국제속도빙상경기대회’는 1988년 12월에 창설되었다. 또한 ‘국제역도경기대회’는 1990년 10월에 창설되었고, ‘국제체조경기대회’는 1991년 7월에 창설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회가 지속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북한의 경제적 상황과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제5장 남북체육교류의 현황과 전망



주제가 있는 통일문제 강좌 21

## 제5장 남북체육교류의 현황과 전망

### 1. 남북체육교류의 의의

#### 가. 체육교류의 의의

체육교류는 체육 분야가 갖는 비정치적 성격으로 인해 남북교류 추진 시 가장 우선시 되었던 영역이다. 따라서 남북체육교류는 냉전 이데올로기가 약화되고 상호 협력과 민족적 공동이익 추구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서도 더디기만 했던 남북교류의 물꼬를 트는데 기여해 왔다. 국민대상 설문조사에서도 남북체육교류가 통일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06 국민생활체육활동참여 실태조사에 따르면 15세 이상 국민 중 남북체육교류가 통일에 '매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8.7%였고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42.6%로서 전체의 51.3%가 남북체육교류가 통일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에 남북체육교류가 통일에 미치는 영향이 '보통이다'고 응답한 사람은 35.2%이고 '전혀 혹은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사람은 각각 2.5%, 11.0%로 나타났다. 2007년 통일의식조사(서울대 통일연구소)에서도 만 19세 이상 65세 이하 국민 중 체육인 교류를 포함한 남북한 사회문화교류가 통일을 이루는 데 '다소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51.9%, '매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17.8%로서 전체의 69.7%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남북체육교류는 1963년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권고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당시 스위스 로잔에서 남북단일팀 구성을 위한 남북 체육회담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단일팀 구성을 위한 남북체육회담은 긴 세월동안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이후 남북 사이에 체육교류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합의서가 교환된 것은 1991년에 이르러서였다.

1991년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부속합의서, 제3장 남북 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에는 체육교류협력의 내용이 다음과 같이 명문화된 바 있다.

첫째, 남과 북은 체육분야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 및 연구·출판·보도 자료와 목록 등 정보 자료를 상호 교환한다.

둘째, 남과 북은 체육 분야에서 기술협력을 비롯한 다각적인 협력을 실시한다.

셋째, 체육부문 기관과 단체, 인원들 사이에서 대표단 파견, 초청·참관 등의 접촉과 교류를 실시한다.

넷째, 남과 북은 체육관련 연구, 조사, 편찬사업, 행사를 공동으로 실시한다.

다섯째, 남과 북은 쌍방이 정한데 따라서 상대측의 각종 체육관련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체육 분야의 경우 '91년 세계청소년축구대회와 세계탁구선수권 대회에서 단일팀 구성 경험이 있고, 최근 대규모 북한선수단과 응원단의 남한방문이 이루어 졌다. FIFA와 IOC 등 국제적 스포츠기구 존재하고 국제체육 외교의 장에서 남북관계자가 접촉할 수 있는 환경 때문에 남북체육교류는 다른 분야의 교류보다 쉽고 빨리 이루어질 수 있으며, 평화·화해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 이목을 끌 수 있는 효과적인 교류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체육교류는 단순히 서로의 경기력을 과시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족 일체감 조성과 신체적 접촉을 통한 상호교류라는 측면에서 타 분야가 지닐 수 없는 교류 효과를 파생시킬 수 있다.

2000년 시드니올림픽 개회식에서 이루어진 남북한 공동입장은 한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에게 흥분과 감동을 안겨 주었다. 남북한 공동입장은 시드니올림픽을 지구촌 평화와 화합의 축제로 만든 결정적인 이벤트였다. 이후 2004년 아테네 올림픽의 개회식과 폐회식에서 모두 남북한 선수가 손을 맞잡고 함께 입장하였다.

올림픽 개·폐회식에서의 선수단 공동입장은 남북체육교류협력의 성과를 잘 보여 준다. 공동입장의 경우 세계 각국에 생중계되기 때문에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남북 화해협력의 의지를 확 인시켜주는 파급효과를 볼 수 있었다.

남북체육교류의 또 다른 성과는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에서 이루어졌다. 북한은 분단이후 처음으로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국제대회에 대규모 선수단을 파견했을 뿐 만 아니라 수백명의 응원단을 별도로 파견하였다. 특히 북한 응원단의 파견은 우리사회에 커다란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대북 접촉 기회가 없던 일반국민들에게 직접 북한 사람들을 대면하고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부



산아시안게임의 소중한 경험은 지난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를 통해서도 계승된 바 있다.

남북체육교류협력을 통해 남북간에 평화화해 분위기를 정착시킨다는 것은 통일 환경의 조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 사회문화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통일의 궁극적인 목표를 단순히 남과 북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분단으로 좌절된 민족국가 복원과 민족공동체의 회복을 통하여 민족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는 것이라 본다면 남북간 체육교류는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간의 체육교류협력은 다음의 몇 가지 점에서 타 분야의 교류와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남북한 체육교류는 역사성을 갖는 문화행사로서의 전통을 갖고 있다. 경평전과 같은 경기대회가 남북체육교류의 전통을 이어 왔다. 경평전은 1929년 시작된 경성(서울)과 평양간에 축구교류전으로서 당시에는 민족의 관심사였다고 기록되고 있다. 이 대회는 함흥을 포함한 3대도시 교류전에서 나중에는 전국 주요 도시대항전으로까지 발전하여 남북교류의 전통을 만들어왔다. 또한 해방 이후 서울운동장에서 열렸던 마지막 경평전에는 축구 이외에 농구 경기도 경평대항전으로 진행되었다.

둘째, 체육교류협력은 타 분야의 교류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대중성을 지닌다. 스포츠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매우 높기 때문에 체육교류가 민족공동체 성원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스포츠는 일반인의 삶 속에 매우 친밀한 소재로 결합되는 일상재로서 규정되고 있다. 2006년 독일월드컵대회

동안 한국의 대 스위스전의 TV시청률은 30.1%이고 한국 대 프랑스전은 29.5%로서 시청률 점유율 면에서 1~2위를 다툴 정도로 높았다. 특히 남북교류가 동질적인 민족공동체 의식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면 대중성을 지닌 스포츠야말로 민족적 동질성을 촉진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남북한 체육은 타 분야에 비해 높은 동질성을 갖고 있다. 스포츠는 동일한 경기규칙·규정 등에 의해 경기가 진행되므로 남북간의 이질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교류될 프로그램의 내용 때문에 빚어질 수 있는 남북교류의 장애요인이 없다. 또 신체의 표현 형식에서 이념이 드러날 소지가 거의 없으므로 교류의 내용과 형식에서 자본주의 체제와 사회주의 체제간의 이질성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남북체육교류협력은 다른 어떤 부문보다도 교류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넷째, 체육교류는 국제단체를 통한 중재가 가능하다. 남북한 체육교류는 양 당사자간에 진행되었지만 국제체육의 장(場)에서 국제체육단체라는 중재자가 존재한 상태에서 진행되었고, 앞으로도 진행될 것이라는 점에서 다른 부문의 교류와 다른 교류의 틀을 갖추고 있다.

즉, IOC, OCA, 각 종목 국제경기연맹 등의 국제적 중재 기구가 남북체육교류 실현을 위해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이러한 국제적 기구를 통해 남북한 간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호 이견 조정을 위해 매우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체육관련 국제기구는 남북한 체육교류 실현을 위해 간헐적이지만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 왔다. 국제유도연맹의 경우

1998년 5월 대한유도회가 요청한 남북한 단일팀 구성을 승인하면서 1개국에서 1팀만 출전하도록 한 기존 규정을 예외로 적용한 바 있다.

또한 IOC는 남북체육교류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 왔다. 1997년 IOC가 북한 NOC측에 남북한간 긴장완화를 위한 체육교류를 제안한 이후 1998년 9월에는 IOC의 특사가 축구, 탁구, 배드민턴 종목에 대한 남북한 교류 계획을 협의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FIFA의 경우에도 남북한의 축구교류가 '축구를 통한 세계평화 기여' 라는 FIFA의 이념과 일치하기 때문에 남북간 축구교류 및 남북 단일팀 구성에도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체육교류의 특성 때문에 남북체육교류협력은 다른 부분의 교류협력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반도 상황과 남북간 역사적 관계에 비추어 체육교류는 다른 분야에 비해 용이하고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되어 민족공동체 형성에 공헌할 것으로 보인다.

## 나. 체육교류의 기능

### 1) 정치적 측면

체육교류가 국가간의 협력과 화합을 도모한다는 사실은 현대 세계사에서도 적잖게 나타난다. 1972년 미국과 중국 관계를 급변시킨 계기는 pingpong기로부터 시작되었다.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핑퐁외교'가 시작된 지 불과 10개월 만인 1972년 2월 리처드 닉슨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 이전까지 상대방을 적대시 해오면서 어떠한 사회문화적 교류

도 허용되지 않았지만 스포츠경기는 양국간의 긴장관계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특히 1980년대에는 서울올림픽을 통해 동서 진영간 정치적 화해를 도모할 수 있었던 전례가 있다. 1988년 서울올림픽 이전까지만 해도 올림픽 경기는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과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 걸쳐 8년 동안 동서간의 정치적 대결로 점철되고 있었다. 그러나 1988년 서울올림픽에 소련과 동구권을 포함한 공산국들 대부분이 참가함으로써 1976년 몬트리올에서 열린 지 12년 만에 동서화합을 이루게 되었다.

남북교류의 정치적 기능으로 볼 때 남북체육교류가 갖는 정치적 기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남북체육교류는 결과적으로 남북한간의 이데올로기 대립으로 인한 긴장관계를 완화시킴으로써 모든 분야의 대화, 교류, 협력을 확대하여 실현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나아가 통일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 2) 사회문화적 측면

통일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가 상대방에 대한 사회문화적 이해를 통해 경쟁적인 적대적 관계를 극복하는 것이라 할 때 체육교류는 다음과 같은 사회문화적 기능을 하게 된다.

첫째,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스포츠의 사회 정서적 기능이나 사회통합의 기능과 관련하여 볼 때, 남북체육교류는 분단 이후 남과 북으로 갈라져 살아오는 동안 약화된 민족의식을 강화시켜 줄 것이다.

둘째, 남북체육교류는 동포애를 고무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는 지난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부산아시안게임이나 시드니 올림픽에서처럼 국제대회에서 남과 북의 응원단이 서로 상대방의 경기를 응원해 준다거나 또는 남북 양팀이 대결하는 경기에서 상대팀에 대한 응원 등은 민족의 화합에도 기여를 하게 된다.

셋째, 남북체육교류는 민족의 정체성을 정립시켜주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을 단적으로 드러내 주었던 것이 1991년 일본에서 열렸던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남북 단일팀이 '코리아 팀'을 구성하여 출전한 결과, 좋은 성과를 거둔 예일 것이다. 이 같은 남북체육교류와 협력을 통해 우리는 우리민족의 능력을 평가받음으로써 민족의 자긍심을 느끼게 되며, 그것은 곧 민족의 정체성 정립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밖에도 남북체육교류는 남북한간의 상호이해를 촉진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거의 반세기 동안 분단된 상황에서 이념과 체제를 달리해 온 까닭에 생활의 양식과 사고방식 등에서 차별화가 심화되어감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이해'라는 문제는 분단 상황의 극복을 위한 1차적 과제가 되었다. 남북한 체육교류는 체육인들의 상호 교류뿐만 아니라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상대방 체제와 사람들이 사는 모습과 생각하는 방식을 알게 된다. 이것은 상호간의 이해를 촉진시키는 단초로 작용하여 점차 이해의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전진되어 갈 것이다.

### 3) 경제적 측면

남북체육교류는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 무드 조성에 일조하여

우리나라 국제 신용도를 상승시킴으로써 외자유치 등을 통한 경제적 기여를 할 수 있다. 스포츠 이벤트의 국내유치를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등 부가가치적 측면에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체육교류가 직접적으로 경제적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체육과 관광을 연계하여 실천되어야 한다. 월드컵이나 올림픽 등 국제적 체육행사가 세계 각국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그 지역의 이미지와 매력을 창출하여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처럼 남북체육교류 과정에서 체육행사와 병행하여 이벤트를 관광을 실시할 경우 남북 모두에게 경제적 실리를 가져다 줄 것이다.

## 2. 남북체육교류 현황

### 가. 2000년 이전

남북간의 체육교류를 위한 최초의 접촉은 1964년 도쿄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을 위해 1963년 1월 스위스 로잔에서 회담한 것이다. 이후 냉전 이데올로기의 강화에 따라 남북체육교류는 회담조차 없이 1978년까지 이어져온다. 그리고 1979년 제35회 평양세계탁구선수권대회 단일팀 구성문제 토의를 위해 그 해 2월과 3월 판문점에서 4차례 접촉하게 되고, 1984년 로스앤젤레스올림픽 단일팀 구성문제, 1988년 서울올림픽 단일팀 구성 및 공동개최 문제, 1990년 북경아시아경기대회 단일팀 구성 문제 등으로 접촉하게 된다. 즉 1990년까지는 실질적인 체육교류라기 보다는 접촉단계로서 의미를 가지며, 1990년 남북통일축구대회 서울·평양 교환경기와 1991년 세계탁구선수권대회와 같은 해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의 남북 단일팀 구성으로 체육교류의 장을 열게 된다.

〈표 1〉 1991년까지 남북체육회담 주요일지

날 짜	장 소	명 칭	내 용
1963. 1. 24 5. 17 7. 26	스위스(로잔) 홍콩 홍콩	동경올림픽 단일팀 구성 회담 단일팀 구성 실무 1차 회담 단일팀 구성 실무 2차 회담	동경올림픽 단일팀 구성 문제 토의(결렬, 별도참가)
1979. 2. 27 3. 5 3. 9 3. 12	판문점 판문점 판문점 판문점	제1차 남북탁구협회 대표회담 제2차 남북탁구협회 대표회담 제3차 남북탁구협회 대표회담 제4차 남북탁구협회 대표회담	제35회 평양세계탁구선수권 대회 단일팀 구성문제 토 의(결렬, 한국 참가무산)
1984. 4. 9 4. 30 5. 25	판문점 판문점 판문점	제1차 남북체육회담 제2차 남북체육회담 제3차 남북체육회담	LA올림픽 단일팀 구성문제 토의(결렬, 북한 불참)
1985. 10. 9~10 1986. 1. 8~9 6. 10~11 1987. 7. 14~15	스위스(로잔) 스위스(로잔) 스위스(로잔) 스위스(로잔)	제1차 남북체육회담 제2차 남북체육회담 제3차 남북체육회담 제4차 남북체육회담	올림픽단일팀 구성 및 공동 개최 협의(결렬, 북한측이 IOC수정안 거부, 북한 불참)
1989. 3. 9 3. 28 10. 20 11. 16 11. 24 12. 22 1990. 1. 18 1. 29 2. 7	판문점 판문점 판문점 판문점 판문점 판문점 판문점 판문점 판문점	제1차 남북체육회담 제2차 남북체육회담 제3차 남북체육회담 제4차 남북체육회담 제5차 남북체육회담 제6차 남북체육회담 제7차 남북체육회담 제8차 남북체육회담 제9차 남북체육회담	북경아시안게임 단일팀 구성논의(결렬, 별도참가)
1990. 11. 29	판문점	제1차 남북체육회담	남북통일축구 정례화, 국제대회 단일팀 구성논의
1991. 1. 15 1. 30 2. 12	판문점 판문점 판문점	제2차 남북체육회담 제3차 남북체육회담 제4차 남북체육회담	국제대회 남북 단일팀 구성토의 탁구단일팀 파견 및 청소년 축구대회논의 탁구단일팀 파견 및 청소년 축구단일팀 구성합의

1989년부터 북경아시아경기대회의 단일팀 구성을 위해 수차례에 걸쳐서 진행되던 남북체육교류는 1990년 4월에 일시 중단되게 된다. 그리고 1990년 9월 북경아시아경기대회를 계기로 10월 11일 평양에서 남북통일축구대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이후 남북체육회담은 판문점에서 다시 열렸다. 동 체육회담은 「제41차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단일팀 실무위원회 구성·참가에 관한 합의서」와 「제41차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단일팀 실무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남북 단일팀 구성·참가에 관한 합의서」와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단일팀 실무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공동 발표하고 일본 지바와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개최된 양 대회에 단일팀 출전을 이루게 되었다.

〈표 2〉 1990년 남북통일축구대회 서울·평양 교환경기 개최 현황

구 분	평 양 대 회	서 울 대 회
방문기간	'90. 10. 9~10. 13	'90. 10. 21~10. 25
방 문 자	76명(선수단45, 인솔11, 보도20) -인솔 : 체육부장관(정동성)	78명(선수단45명, 인솔11, 보도22) -인솔 : 국가체육위원회위원장(김유순)
경 기 일 / 장 소	'90. 10. 11 / 5·1경기장	'90. 10. 23 / 잠실주경기장
방문경로	서울-북경-평양-판문점-서울	평양-판문점-서울
경기결과	북한승리 (2:1)	남한승리 (1:0)

남북체육교류는 1991년 세계탁구선수권대회와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의 남북단일팀 구성 참가이후에 침체하게 된다. 1998년



에 방콕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단일팀 구성을 의제로 우리가 제안한 남북체육회담은 북한의 거부로 이뤄지지 못했다.

정부간 체육회담이 소강상태인 상황에서 민간부분의 남북체육 교류가 시작되었다. 1999년 8월 노동단체가 주도한 '통일염원 남북노동자축구대회'가 평양에서 열렸으며, 11월 현대의 정주영 명예회장의 방북을 통해서 민간 기업이 나서는 체육교류의 장이 열렸다. 현대는 북한과 합작 사업으로 평양에 실내종합체육관을 건설하여 기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동 실내체육관의 기공식을 전후로 남북 농구경기대회가 진행되었다. 평양시내 8,000여평의 부지에 12,335석 규모의 실내 체육관을 건설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아산이 추진하는 평양실내체육관 건설사업은 남북협력 사업으로, 남한의 건설근로자가 상주하고 건설물자와 장비 등이 육로로 운송되기도 하였다.

삼성전자는 2000년 7월 평양현지공장 설립을 앞두고 평양체육관에 전광판을 기증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통일탁구대회'라고 명명한 남북탁구경기대회를 열었다. 남녀 단복식과 남남북녀, 북남남녀가 짝이 되어 치른 혼합복식 등 5경기가 진행되었다. 2000년에는 우인방커뮤니케이션이 금강산자동차질주경기대회를 7월 3~4일 양일간 남북한 양측을 가로지르는 지역에서 시행하였다. 동 대회에 남한에서는 인원이 22명, 자동차 47대가 참가하였다. 2000년에는 시드니올림픽 동시입장이 성사되어 남북팀이 동일한 단기와 단가, 복장으로 개회식과 폐회식에 참가하였다. 그 해 10월 제81회 부산전국체육대회 성화가 금강산에서 채화되기도 하였다.

〈표 3〉 1991년 국제경기대회 단일팀 참가 현황

구 분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대회
일시/장소	'91. 4. 24 ~ 5. 6 / 일본 지바현	'91. 6. 14 ~ 6. 30 / 포르투갈 리스본
호 칭	『코리아』, 『KOREA』	좌 동
단 기	흰색바탕에 하늘색 우리나라 지도	좌 동
단 가	1920년 우리나라 『아리랑』	좌 동
선수 선발	단일팀 공동추진기구에서 협의·선발	서울·평양 공개 평가전을 기초로 단일팀 공동추진기구에서 협의·선발
선수단구성	단장(북측) 총 56명 (남북 각 28명, 선수 각 11명씩)	단장(남측) 총 62명 (남북 각 31명, 선수 각 9명씩)
선수 훈련	일본전지훈련('91. 3. 26~4. 23)	남북왕래훈련('91. 5. 6~5. 21) - 서울평가전 5. 6~9/70명(잠실) - 평양평가전 5. 10~16/70명(5·1) - 서울강화훈련 및 결단식 5. 17~21 /72명(잠실)
선수단경비	남북 공동부담	좌 동
장비조달	단복-북측, 운동복 등-남측	좌 동
귀 국	'91. 5. 8(동경에서 서울·평양으로)	'91. 6. 28(북한), '91. 6. 29(남한)
대회 결과	여자단체전우승 및 개인단식준우승 (이분희) 남자개인단식 3위(김택수) 혼합단식3위	8강진출(예선 1승1무1패) 준준결승전에서 브라질에 패배(5:1)

〈표 4〉 1990년~2000년 남북체육교류 주요현황

사업명	개최지	일자	참가자	비고
남북통일축구대회 서울·평양 교환경기 개최(1990)	평양	'90. 10. 9 ~10. 13	76명(선수단 45, 인솔 11, 보도 20)	남한 : 체육부장관 인솔
	서울	90. 10. 21 ~10. 25	78명(선수단 45명, 인솔 11, 보도 22)	북한 : 국가체육위원회 위원장 인솔
제41회 세계탁구 선수권대회 단일팀 구성 참가(1991)	일본 지바	'91. 4. 24 ~ 5. 6	총56명(남북 각 28명, 선수 각 11명씩)	단기 : 한반도기 단가 : 아리랑
제6회 세계청소년 축구대회 단일팀 구성 참가(1991)	포르투갈 리스본	'91. 6. 14 ~ 6. 30	총62명(남북 각 31명, 선수 각 9명씩)	단기 : 한반도기 단가 : 아리랑
통일염원 남북노동자 축구대회(1999)	평양	'99. 8. 10 ~ 8. 14	37명 (선수단 22, 인솔 15) 남북 노동단체	8.12(남북대결) 8.13(남북혼합팀 구성)
현대 통일농구 교환경기(1999)	평양	'99. 9. 27 ~10. 1	79명(선수단 42, 현대관계자 31, TV중계요원 6)	9.28(혼합경기) 9.29(남북대결)
	서울	'99. 12. 22 ~12. 25	62명(선수단 38, 교예단 14, 위성중계 기술자2, 아태관계자8)	12.23(혼합경기) 12.24(남북대결)
금강산 자동차질주 경주대회(2000)	서울,평양, 금강산	'00. 6. 30 ~ 7. 4	241명	
삼성통일탁구 경기대회(2000)	평양	'00. 7. 26 ~ 7. 30	50명 (선수단13, 일솔37)	남북대결 및 남북혼합팀 구성 경기
시드니올림픽대회 개막식 공동입장	호주 시드니	'00. 9. 15	남북 각90명씩 180명	단기 : 한반도기 호칭 : KOREA
제8회 부산전국체전 금강산 성화채화 (2000)	금강산 옥류동 무대 바위	'00. 10. 1	50명 (주관 : 부산광역시 - 금강산관광총회사)	

## 나. 2001~2007년

2001년 2월 제2차 통일염원 국제렐리와 관련된 협의를 위해서 남북 당사자간 회담이 이루어졌고, 이어 3월에는 남북태권도시범단 교환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접촉이 이루어졌다. 이후 제46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참가문제를 협의하고(3월), 제18회 부산 아·태장애인경기대회에 북한 초청(9월) 및 2002년 부산아시아경기대회 북한 참여를 추진하기 위한 만남(11월) 등이 이루어졌다. 2001년 4월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된 제46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서 남북이 공동응원을 하였고, 대한양궁협회와 삼성그룹에서 체육용품 및 체육설비 지원이 있었다. 2001년에는 남북체육교류와 관련하여 북한에서 남한을 방문한 사례는 없었다. 그러나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체육교류협력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었다.

한편 방북을 통한 교류사업으로는 2001년 7월 29일부터 31일 까지 금강산 지역에서는 우인방커뮤니케이션이 주최하는 제2회 자동차질주경기대회가 개최되었고 8월 15일에는 국제모터사이클 투어링이 개최되었다. 이 대회에는 미국, 일본, 독일 등 12개국 모터사이클 동호인 35명 등 총 399명이 참가하였는데, 남한에서는 46대 차량과 209명이 참가하였다. 또한 2001년에는 현대아산에서 건립하고 있는 평양실내체육관 건설사업이 계속 시행되었다.

이외에 2001년 9월 15일부터 18일 까지 서울에서 개최되었던 남북장관급회담에서는 남북태권도시범단 교환사업이 합의된 바 있다. 당시 태권도시범단 교환 행사를 위해서 남한의 대한태권도협회와 북한의 조선태권도위원회 간의 협의를 위한 접촉은 북한의 거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북한이 제시한 협의 거부 이유는 미국 뉴욕의 9.11 테러로 인해 남한에 내려진 비상경계조치였다. 2001년 3월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방북하였고, 방북 중 제46회 세계탁구선

수권대회 단일팀 구성에 대해서 합의를 도출했으나, 북한이 준비상 어려움을 제기하여 성사되지 못하였다.

2002월드컵의 경우도 분산개최와 단일팀 구성이 목표로 논의되면서 남한 축구협회 회장은 국제축구연맹(FIFA) 부회장과 함께 방북해서 현안 사항을 협상하였으나 결국 무산되었다. 그러나 2002년은 남북체육교류에 있어서 획기적인 한 해였다. 그 동안 남한에서 이루어지던 국제행사에는 무조건 불참하던 북한이 대규모 선수단을 이끌고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에 응원단과 함께 참가한 것이다. 역시 같은 해 남북태권도 시범단 교류가 있었고 이후에도 태권도의 이질성 극복을 위한 공동학술대회도 실시하는 등 민간 교류에도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 후 북한은 2003년 대구유니버시아드에 선수단과 응원단을 파견하였다. 같은 해 남북은 민간차원의 민족통일평화체육문화축전 개최와 같은 대규모 남북체육문화교류사업을 성사시켰다.

2004년 아테네올림픽에서 또 다시 남한과 북한 선수단이 한반도기를 흔들고 개회식과 폐회식에 참석하여 전 세계에 남북한이 화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아테네올림픽 기간 동안에 일어난 방송위원회와 북한의 조선중앙방송위원회간의 협력사업은 직접적인 체육교류는 아니지만 올림픽과 관련된 중요한 사회문화교류의 진전이다. 2004년 8월 한국은 북한주민이 아테네올림픽 개막식 이후 국제경기대회를 시청할 수 있도록 북한 방송의 올림픽 중계를 지원하였다.

2005년에는 남한에서 개최한 동아시아축구선수권대회, 통일축구대회에 북한 남·여 선수단이 참가하였으며, 제4회 마카오동아시아 경기대회에도 남북한 공동입장이 이루어졌다.

2005년 말 1차 회담을 시작으로 2007년 말까지 4차례에 걸쳐 2008년 베이징올림픽 단일팀 구성 및 참가를 위한 체육회담이 개최되었다. 올림픽 및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에서의 남북 단일팀 참가는 남북체육교류의 오랜 숙원이라 할 만하다. 남북 국가올림픽 위원회 위원장들은 2005년 9월 중국 광저우에서 열렸던 아시아올림픽위원회(OCA) 기간동안 회합을 갖고 2006년 도하아시안게임 및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 남북이 단일팀을 구성하여 참가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하였다.

2006년 도하아시안게임과 2008년 베이징올림픽게임 단일팀 구성을 의제로 한 남북체육회담이 2005년 12월 7일 개성에서 열렸다. 남북 체육계간의 협력분위기는 2006년 6월 29일 역시 개성에서 열린 2차 남북체육회담으로 이어졌다. 제2차 회담에서는 북한의 요구에 의해서 도하아시안게임 단일팀 구성문제가 의제에서 제외되었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 남북단일팀 구성관련 의제는 단일팀 선수단의 명칭(코리아), 선수단가(아리랑), 단기(독도 포함 한반도기), 단일팀 선포식 일정 및 훈련방법에 관해서는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2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3차 회의에서도 베이징올림픽 단일팀 구성 문제에 대한 남북간 의견차이는 좁혀지지 않았다. 2006년 11월 30일부터 12월 2일 사이에 카타르 도하에서 이루어진 제3차 남북체육회담과 2007년 2월 개성의 제4차 회담에서도 파견할 단체종목의 선수선발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였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남북단일팀구성을 권고하고 구체적인 안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IOC는 2006년 12월 24일 남북한 올림픽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공문을 발송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개인종목의 경우는 남북올림픽위원회가 각각 개별적으로 참가자격 대회에 참가한 후 IOC가 해당종목의 국제연맹과 최종 참가자격 및 인원에 대해 협의하며, 단체종목의 경우는 개별적으로 예선대회에

참가한 후 IOC가 해당 국제연맹과 종목별로 단일팀에 적용할 참가 인원에 대해서 특별 규정을 두어 인정할 것을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2007년 2월 13일 개성에서 개최된 제4차 남북체육회담에서는 핵심쟁점인 선수선발 방식과 예선전참가 방식에 대해 재논의 하였다. 북한은 단체종목의 선수선발 방식에 대해 종전과 마찬가지로 남북한이 5대5 동수로 단일팀을 구성해 종목별 예선전부터 출전하자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남한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권고에 따라 예선전에 개별적으로 참가한 후 참가자격 획득팀을 중심으로 단일팀을 구성하자는 안과 이것이 어려울 경우 엔트리의 두 배수 범위 내에서 남북 5대5 동수로 팀을 구성한 후 평가전 등을 거쳐 우수선수를 최종 선발하여 출전시키는 안을 제시하였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못하였다. 다만 선수선발 문제를 제외한 여타 문제(단일팀 명칭, 단가, 단기, 임원구성, 공동기구 등)에 대해서는 다소간 의견접근을 보았다.

〈표 5〉 2001년~2007년 남북체육교류 주요 현황

사업명	개최지	일 자	참 가 자	비 고
제 2차 금강산 자동차 질주 경주대회(2001)	금강산	'01. 7. 29 ~7. 31	241명	
태권도시범단 교환 (2002)	평양	'02. 8. 14 ~8. 17	65명(남35, 북30)	- 7차 남북장관급회의 실무회의 합의에 근거 - 황봉영 조선태권도 위원회의 초청
	서울	'02. 10. 23 ~10. 26	62명(남21, 북41)	
남북통일축구경기 (2002)	서울	'02. 9. 5 ~9. 8	이광근 등 49명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참가 (2002)	부산	'02. 9. 29 ~10. 14	- 선수단 312명 - 응원단 288명	비선수단 참가자 ( '02. 10. 8 ~ 10. 15) 장웅 등 7명
아오모리동계아시아안 게임 폐회식 공동 입장(2003)	일본 아오모리	'03. 2. 1 ~2. 8	- 남 선수단 110명 - 북 선수단 40명	- 단기 : 한반도기
제22회 대구하계유 니버시아드 (2003)	대구	'03. 8. 21 ~8. 31	전극만 등 524명	- 선수단 197명 - 응원단 등 327명
남북태권도교류 협의 및 대구 하계유니버 시아드 참관(2003)	대구	'03. 8. 17 ~8. 21	장웅 등 3명	
정주영체육관 개관 식 및 통일농구대회 (2003)	평양	'03. 10. 6 ~10. 7	김윤규 등 1,100여명	- 경의선 임시도로로 육로 방북 - SBS 평양에서 통일 농구대회 중계
제주민족평화축전 (2003)	제주	'03. 10. 23 ~10. 28	김영대 등 184명	
아테네올림픽 공동 입장 (2004)	그리스 아테네	'04. 8. 14	- 남 선수단 136명 - 북 선수단 50명	- 단기 : 아리랑 - 단기 : 한반도기



사업명	개최지	일 자	참가자	비 고		
제2회 동아시아 축구선수권대회(2005)	대구, 전주, 대전	'05. 7. 26 ~8. 7	북 선수단 66명			
남북통일축구(2005)	서울	'05. 8. 14 ~8. 16	남·여 선수단 63명			
제4회 마카오동아시아경기대회 공동입장(2005)	마카오	'05. 10. 29 ~11. 6	남북선수단			
615공동선언 실천 남북강원도겨울철체육경기	춘천	'06. 3. 2 ~3. 5	선수단 36명 (단장 정덕기 북측 민화협 부회장)	- 남북선수단 합동훈련 - 남측 대학선발팀과 북측 선발팀 혼성경기 - 남북 시범경기		
도하아시안게임 개폐회식 공동입장(2006)	카타르 도하	'06. 12. 1 ~12. 15	남북선수단	- 공동기수는 이규선선수(남측)와 리금숙선수(북측)		
남북유소년 축구선수단 상호교류	북청소년팀 남방	한남	제주, 수원, 순천, 광양, 서울	07.3.20 ~4.20	북 선수단 32명	- 15~17세 - 전지훈련
		강진		07.10.9 ~10.25	북 선수단 26명	- 15세 이하 - 친선 경기
	남청소년팀 북방	한남	평양	07.6.23 ~7.3	남 선수단 30명	
		평양	평양	07.11.3 ~11.25	남 선수단 26명	
북한 태권도 시범단 방남	서울, 춘천	07.4.6 ~4.9	북 시범단 48명	- 단장 장웅 IOC 위원		
남북 노동자 통일축구	창원	07.4.30		- 51절노동자통일대회 행사 - 북 대표단 60명 방남		
2007 FIFA 청소년(U-17) 월드컵대회	서울 등 8개 도시	07.8.7 ~8.31	북 선수단 31명	- 16강 진출 - 2회연속 8강 진출 실패		
제2회 국제청소년 친선축구대회	전남 강진	07.10.13 ~10.25	북 선수단 22명	- 한국, 북한, 프랑스 등 7개국 참가 - 한국 중등축구연맹 주최		
평양시체육단 축구장 준공식	평양	07.11.9	남 대표단 145명	- 축구장 시설 현대화사업		

**(표 6) 체육 관련 북한 및 남한 방문 현황(2001년~2007년)**

구 분		북 한 방 문	남 한 방 문
2001년	전 체	698(8,551)	5(191)
	체 육	37(310)	1(1)
2002년	전 체	753(12,825)	13(1,052)
	체 육	37(326)	4(765)
2003년	전 체	983(15,280)	11(1,023)
	체 육	19(1,190)	3(717)
2004년	전 체	1,428(26,213)	13(321)
	체 육	4(5)	0(0)
2005년	전 체	6,086(87,028)	39(1,313)
	체 육	27(799)	1(78)
2006년	전 체	12,468(100,838)	41(870)
	체 육	34(266)	1(4)
2007년	전 체	29,862(158,170)	69(1,044)
	체 육	65(1,198)	6(213)

건/(명)

 자료: 통일부 홈페이지 [www.unikorea.go.kr](http://www.unikorea.go.kr)에서 재작성

주: 전체는 이산가족, 경제, 교육학술, 문화예술, 체육, 종교, 언론출판, 관광사업, 교통통신, 과학환경, 경수로, 대북지원, 기타 등임(금강산 관광은 제외)

체육교류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남북간에 인적 접촉은 1989년 6월 12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 시행 이후 점차 활발해져가고 있다. 2007년의 경우 남북간 교류를 목적으로 한 방북 건수는 29,862건이며 방북한 인원수는 158,170명이다. 이중 체육 관련 방북 사례는 65건이며 방북자수는 1,198명으로 집계되었다.

2001년부터 2007년까지 북한 주민의 남한 방문 건수는 총 191건이며 방문자수는 5,814명이다. 체육과 관련해서 남한을 방문한

건수는 총 16건이며 방문자수는 1,778명이다. 남북체육교류의 경우 남한방문 건수에 비해서 방문자수가 많은 것은 부산아시아경기 대회나 대구유니버시아드 등 인적 교류규모가 큰 경기대회에 참가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남한의 북한 방문 현황을 보면 2003년 10월에는 1999년에 착공한 ‘유경 정주영체육관’ 개관식 참석 등의 목적으로 남한에서 1,000명 규모의 참관단이 북한을 방문한 바 있다. 2005년 북한 방문은 총 27건이며 799명이 체육관련 업무로 북한을 방문하였고, 2006년에는 34건에 266명이 북한을 방문했다.

2005년도 남북체육교류는 마카오 동아시아대회 동안 시작된 도하아시아게임과 베이징올림픽 단일팀 구성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2005년 9월 중국 광저우에서 대한올림픽위원회 김정길 회장과 조선올림픽위원회 문재덕 위원장 간의 회동이 시발점이 되어 남북 단일팀 구성에 대한 원칙적인 논의가 있었다. 이후 2005년 11월초 마카오 동아시아대회 기간 중 개최된 남북체육회담 실무대표단 회의에 남북 양측 6명이 참가하였으며, 이어서 12월 7일 남북 체육회담이 개성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양측은 서로 다른 입장 차이를 확인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남북사회교류협력 사업으로 승인을 받아 추진된 ‘코리아 민족의 체육발전을 위한 학술토론회’는 2005년 북경에서 개최되었다. 동 행사 역시 남북한간의 체육학술교류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동 행사에서는 남북한의 스포츠 중에서도 엘리트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이론적 접근을 소개하고 현 단계를 평가하며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려는 시도였다. 북경의 남북체육학술교류에서는 남한에서 민족통일체육연구원이 참여하고 북한에서는 조선체육대학교 교수 5명, 체육과학연구소 연구원 3명 등이 참가하였고 중국의 조선족 학

자 1인이 참여하여 총 17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또한 2005년 8월 4일부터 9일 사이에 중국 연길시 연변대학교에서 남한의 한국체육학회, 북한의 조선사회과학자협회, 연변대학교 체육연구소가 공동주최한 스포츠과학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동 학술대회의 주제는 '민족체육문화의 회고와 전망'이었다. 동 학술교류 행사에서는 남북 및 중국 거주 조선족 학자에 의해서 총 18개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참석자는 남한의 경우 한국체육학회 대표단이 구성되었다. 학회 회장단과 각 분과학회를 대표한 학자, 그리고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 연구원들이 참여하였다. 북한에서는 평양체육대학교 교수와 기관차체육단 연구원, 체육연구소 연구원이 참가하였다. 중국거주 조선족 학자로는 연변대학교 체육계열 교수가 참여하였다.

2007년에는 축구분야의 남북교류가 특히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먼저 남북체육교류협회(남한)와 4.25체육단(북한)이 남북유소년축구 상호교환경기 개최에 합의하였다. 양 단체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향후 5년간 매년 상·하반기 각각 1회씩 남북 교환경기를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교류 첫 행사로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북한 청소년 축구팀 23명(15~17세)이 방한하여 제주와 수원, 전남 순천과 광양, 서울 등지에서 2007 FIFA청소년(U-17) 월드컵 대비 전지훈련을 실시하였다. 15세 이하 북한 청소년팀 34명도 6월 1일부터 14일까지 방한하여 강진에서 한국, 중국, 강진중 팀과 친선 경기를 가졌다. 남한 청소년팀의 방북도 이어져 6월 23부터 7월 3일까지 12세 이하 유소년팀 26명이, 그리고 11월 3일부터 14일까지 22명이 평양을 방문하여 친선경기를 가졌다.

북한 대표팀은 8월 18일부터 9월 9일까지 서울 등 8개 도시에서 개최된 2007 FIFA청소년(U-17) 월드컵대회에도 참가하였다.

북한은 선수단 31명을 8월 7일 사전 입국시켜 전남 광양에서 전지 훈련을 실시하였으나 16강 진출에 그쳐 대회 2연속 8강 진출에는 실패하였다. 10월 13일부터 25일에는 북한 청소년 팀 22명이 전남 강진에서 개최된 제2회 국제청소년 친선 축구대회(10.16~25)에 참가하기 위해 방한하였다. 한국 중등축구연맹이 주최하고 강진군이 주관한 이 대회에는 한국(2개팀)을 비롯해 북한, 브라질, 프랑스, 일본, 중국, 동티모르 등 7개국 8개 팀 2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하여 친선경기를 가졌다.

이외에도 인천시와 사단법인 '평화 3000'이 체육진흥공단의 지원 하에 평양시체육단 축구장 현대화사업을 진행하였다. 인조잔디와 우레탄을 설치하는 등 시설 개·보수에 10억 5천만원이 소요된 이 사업은 11월에 완결되어 11월 9일 평양에서 '축구장 준공식 및 기증식'이 개최되었다. 행사 참여를 위해 인천시장을 포함하여 남한 대표단 145명이 방북하였고, 준공식이 끝난 후에는 남북 유소년팀 간에 훈련경기도 열렸다.

축구 이외에 태권도 및 권투분야에서도 남북교류가 진행되었다. 4월 6일부터 9일까지 강원도의 초청으로 북한 태권도 시범단 48명이 방한하였다. 춘천과 서울에서 2차례의 태권도 시범행사를 실시한 북한 시범단은 각종 손발 응용동작, 1대1 대련, 건강태권도, 호신술 시범 등을 선보였다.

10월 19일에는 2004년 남북권투대회 개최 이후 여섯 번째로 남북권투대회가 개최되었다. 개성시 학생소년궁전에서 열린 이 대회에서는 남한의 최신희(24), 손초롱(20) 및 북한의 유영심, 김혜성 간 논타이틀 매치(6R)경기, 남자 아마추어 친선경기 2경기 등 모두 4차례 남북대결이 벌어졌다. 한국권투위원회 회장 등 남북 주요 인사들과 남측 관광객 500여명도 방북하여 개성 시내를 관광한 뒤

남북 북서들의 경기 장면을 관람하였다.

### 3. 남북체육교류 전망과 과제

남북한 사이에는 경제적 교역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동시에 금강산 관광을 제외하고도 인적 접촉과 남북한 방문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여전히 사회·문화 분야 교류협력의 폭은 커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지만 분야의 다변화 및 전문화가 이뤄져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요한 남북한 체육교류의 오랜 숙원 중 하나는 올림픽대회 단일팀 구성이다. 2008 베이징올림픽 단일팀 구성과 관련하여 2005년 마카오 동아시아게임에서 남북올림픽위원회 수장들 사이에 원칙적인 동의가 이뤄진 이후 4차례 남북체육회담이 개최되었다.

단일팀 구성은 선수 선발, 선수단 구성, 공동 훈련, 공동 상징물(단기, 단가, 명칭 등)에 대한 합의문제 외에도 다양한 쟁점이 관련된다. 이미 단일팀의 명칭으로서 코리아, 단기로써 독도가 포함된 한반도기, 단가로서 아리랑의 사용, 훈련 방법 등 의제는 의견이 접근되어 있다.

그러나 2005년 12월 7일 개성, 2006년 6월 29일 개성, 2006년 11월 30일과 12월 2일 카타르 도하, 2007년 2월 13일 개성에서 열린 4차례의 남북체육회담에도 불구하고 2008년 베이징올림픽 단일팀 구성문제는 타결되지 못하였다. 동 협상과정에서 예상되었던 난관은 남북 간의 경기력 수준이 더욱 커진 상황에서 어떠한 원칙과 방향으로 단일팀의 선수를 선발할 것인가에 있었고 이 문제로

회담이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남한의 북한 방문자 수가 10만명이 넘어서고 개성공단을 포함한 남북경제협력이 활발해지고 있다. 남북교류협력의 질적 도약을 뒷받침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도 제정 공포되어 향후 남북체육교류협력의 발전이 기대된다.

한편, 남북체육교류에 관심을 갖게 된 단체도 늘어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교류협력의 일환으로 남북체육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보다 전문적으로 남북체육교류사업을 추진하려는 민간단체의 역량도 커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향후 발전을 위해서 풀어가야 할 남북체육교류의 과제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첫째, 교류의 제도화와 정례화가 필요하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체육교류를 위해서는 정부간 또는 NOC간 체육협정과 후속협약 체결이 필요하다. ‘남북사회문화협력추진위원회’와 같은 상호 협의체가 구성된다면 체육교류의 정례화와 중장기적인 체육 분야 협력사업의 합의가 가능할 것이다.

둘째, 정부뿐만 아니라 체육 관련단체의 교류확대가 필요하다. 남북체육교류의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민간이 주도하되 정부에서 지원’ 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남북한간의 체제차이로 인해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우리는 대한올림픽 위원회나 각 경기단체 등 연관성 있는 체육단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다방면적인 접촉과 교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체육교류 영역의 확대이다. 종전에 이루어진 통일축구와 남북단일팀구성, 부산아시안게임과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의 북한 참가는 국가대표 선수위주의 엘리트 체육교류에만 주안점을 둔 경향이 있다. 국제대회 개최회식에서의 선수단 공동 입장이나 단일팀 구성이외에도 선수단, 팀간 공동 훈련지원이나 남북 체육지도자 및 스포츠과학자, 연구자간 상호교류, 북한에 대한 체육용품 및 시설 지원사업 등 다양한 교류가 필요하다. 또한 남한에서 생활체육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교류 종목과 추진 주체를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 교류 종목과 관련해서 북한이 민족 고유의 놀이에 관심이 많은 만큼 민족의 전통성을 확인할 수 있는 씨름, 널뛰기 등의 민속놀이를 교류로 확대할 경우 한민족의 문화공동체를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한 동서독의 경우처럼 지방자치단체 간 자매 결연을 맺고 지역 생활체육인간의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남북주민간의 상호 이해와 교류의 폭을 다양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넷째, 교류재원의 안정적 확보이다. 현재 남북체육교류사업에 대해서도 남북협력기금이나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정부의 승인을 받은 사업에만 한해서만 교류재원이 지원된다. 체육교류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북체육교류 사업의 재원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남북체육교류와 관련해서 성과를 평가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연구하며 다양한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는 보다 많은 관계자와 단체가 남북체육교류를 위한 노력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줄 것이다.



여섯째, 남북체육교류를 통해서 남북체육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남북 체육계는 세계태권도연맹(WTF)과 국제태권도협회(ITF)간 산적한 과제인 태권도 통합 과제를 풀어가야 하며, 우리가 각종 국제대회 개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올림픽위원회나 국제체육기구에서의 남북간 유대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 스포츠과학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네트워크의 형성도 남북체육교류의 과제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주제가 있는 통일문제 강좌」 시리즈

01. 대북협상, 어떻게 볼 것인가? (2003.12)
02. 대북지원, 새롭게 보자 (2004.8)
03. 먹거리를 통해 본 북한 현실 (2005.2)
04. 한반도 평화정착과 유럽연합의 교훈 (2005.3)
05. 21C 국제질서의 변화와 한반도 (2005.7)
06. 남북관계발전의 법적 이해 (2005.6)
07. 남북한의 역사인식 비교 (2005.9)
08. 남북한 예술 어떻게 변하였나? (2005.9)
09. 남북한 IT 용어 비교 (2005.9)
10. 김정일시대 북한교육의 변화 (2006.3)
11. 북한법을 보는 방법 (2006.4)
12. 정보화시대, 북한의 정보화 수준 (2006. 9)
13. 북한 과학기술의 이해 (2006. 12)
14. 북·중 국경무역과 북한의 시장실태 (2006. 12)
15. 알기 쉽게 풀어쓴 통일이야기 (2006. 12)
16. 북한의 환경정책과 실상 (2006. 12)
17. 북한의 종교실상과 남북종교교류 전망 (2006. 12)
18. 북한의 의료실태 (2006. 12)
19. 북한의 법제정비 동향과 특징 (2007. 12)
20. 북한의 관광자원 실태와 전망 (2007. 12)

주제가 있는 통일문제 강좌 21

## 북한의 체육실태

• 인쇄일 2008년 7월 21일

• 발행일 2008년 7월 23일

• 발행처 통일부 통일교육원

142-887,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수유동)  
전화 02)901-7161~7 / 팩스 02)901-7088  
통일교육원 홈페이지 [www.uniedu.go.kr](http://www.uniedu.go.kr)

• 편집/인쇄처 맑은인쇄 전화 02)2265-7896

(비 매 품)

